조선민족음악사에
깃든 유래와 일화

조선민족음악사에 깃든 유래와 일화

조선 ·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107(2018)년

차 례

머 리 말

아득한 옛날부터 남달리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서적미감을 지니고 음악과 무용을 몹시 사랑하고 즐겨온 우리 인민은 음악예술분야에서 뛰여난 재능을 발휘하여 인류문화의 보물고에 기여한 우수한 민족음악유산을 남기였다.

그러나 지난 20세기초에 이르러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강점한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와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상전래의 민족음악유산이 묵살되고 이지러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자랑찬 민족음악사도 빛을 잃게 되였다.

당시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음악창작가들과 연주가들은 전통적인 민족음악의 명맥을 지켜내기 위하여 온갖 모지름을 다 썼으나 자기들의 꿈을 실현할수 없었다.

오로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비로소 말살되였던 민족음악유산들

이 전면적으로 발굴, 수집, 보존되고 빛나게 계승발전되게 되였다.

음악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우수한 민족음악유산들은 시대적요구와 현대적미감에 맞게 더욱 발전하게 되였다.

도서《조선민족음악사에 깃든 유래와 일화》에는 옛 문헌들과 연구자료들에 전해오는 우리 인민의 민족음악사에 깃들어있는 유래와 일화들을 수집, 정리하여 묶어놓았다.

고대로부터 중세, 근대를 거쳐 해방전 현대초기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발전해온 조선민족음악의 흐름속에서 발현된 일화와 유래를 잘 알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도서를 출판한다.

유 래

민족악기 가야금

가야금은 5세기말～6세기 초엽에 활동한 가야국의 재능있는 음악가 우륵이 창안제작한 특색있는 민족현악기이다. 가야국에서 나온 악기라고 하여 가야금이라고 이름지었다.

5세기말 가야국 소국의 하나였던 대가야의 고령지방 성열현(오늘의 가야산부근)에서 민간음악가의 집안에서 태여난 우륵은 어려서부터 음악에 남달리 조예가 깊었으며 6세기초에는 금관가야 궁중악단의 악공으로 선발되였다.

얼마안되여 그는 음악과 무용에서 두각을 나타내여 악공, 녀기들을 가르치는 악사로 등용되였다.

당시 금관가야의 마지막왕인 구형왕(521～532년)은 악사 우륵에게 가야국의 특색있는 악기로 될수 있는 가야금을 만들며 가야금곡도 짓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우륵은 우리 나라 진국－삼한시대로부터

가야국에 전해오던 12줄로 된 슬이라는 현악기와 고구려, 백제에서 전수된 12줄 또는 13줄로 된 쟁이라는 현악기를 토대로 하여 특색있는 민족악기 가야금을 창안제작하였다.

가야금의 유래와 관련하여 김부식이 쓴《삼국사기》에는《가야금은 가야국의 가실왕이 당나라 악기를 보고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력사적사실과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실왕은 가야국왕조에 이름조차 없을뿐아니라 만약 가실왕을 금관가야의 마지막왕인 구형왕으로 본다해도 그는 음악에 대한 조예가 없었기때문이다. 더우기 구형왕때에는 중국의 당나라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가야금은 우륵에 의하여 창안제작된 이후 천수백년간 모양이 크게 달라짐이 없이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는 특색있는 민족악기로 되고있다.

이처럼 6세기 초엽 금관가야의 악사로 활동하던 첫 시기에 우륵은 전통적인 민족악기에 토대하여 특색있는 민족현악기인 가야금을 창안제작하고 여러 지방 민요와 가무음악에 기초하여 무곡적성격을 가진 가야금곡을 작곡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가야금음악의

시초를 열어놓은 재능있는 음악가로 음악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였다.

가요 《무애가》

신라의 유명한 중인 원효(617～686년)가 지은 《무애가》의 유래와 관련하여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여있다.

《원효는 우연히 배우들이 가지고 노는 큰 박을 얻었는데 그 형상이 괴이하므로 그 모양을 본따서 도구를 만들어 〈화엄경〉 속에 나오는 〈아무 꺼리낌없는 사람은 한가지 도로써 생사를 벗어난다.〉라는 문구를 따서 이름을 〈무애〉라고 하고 계속하여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일찌기 이 도구를 가지고 수많은 촌락들에서 노래부르고 춤추면서 교화시키다가 돌아왔다. 이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몽매한자들의 무리들로 하여금 다 부처의 이름을 알게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하였으니 원효의 교화야말로 참으로 크다고 할것이다.》

이 기사를 통하여 원효가 당시 민간예술인들인 거사, 광대들의 예술활동에 편승하여 민간에서 교리를 전

파시키면서 지어 부른것이《무애가》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리인로의《파한집》에 의하면 당시 원효가 무인(광대)들이 가지고 노는 큰 박을 본따서 만들었다는《무애》라는 도구는 탈이 아니라 호로박 웃쪽에 금방울을 달고 아래쪽에 채색비단쪼각을 단 일종의 무용소도구였다고 한다. 그런것만큼 무애를 가지고 춤추면서 부른《무애가》는 가무음악으로 창작된 노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무애가》는 그후 궁중음악에 인입되여《무애무》라는 악무로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계승되였다.

향가 《모죽지랑가》

《모죽지랑가》는 7세기말 신라 효소왕때 득오곡이란 사람이 죽지랑의 미덕과 풍모를 찬양하고 사모하여 지은 향가이다.

당시 죽지랑의 문하에 속해있던 득오곡은 어느날 죽지랑에게 하직인사할 겨를도 없이 모량땅의 아간 익선의 집에 끌리워가서 일하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열흘이 되도록 득오곡이 보이지 않게 되자 죽지랑은 그의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간곳을 듣고 죽지랑은 말하기를 《네 아들이 만약에 사사로운 일로 모량에 갔다면 구태여 찾아볼것도 없겠지만 이제 들으니 공무로 갔다하니 찾아보고 음식대접이라도 해야만 되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나서 죽지랑은 하인들을 시켜 떡 한 합과 술 한 항아리를 가지고 떠났다.

이때 죽지랑의 문하에 속한 137명의 부하들도 역시 위의를 갖추고 뒤를 따랐다.

죽지랑일행이 모량의 부산성에 당도하여 문지기에게 득오곡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지금 익선네 밭에서 전례대로 농사일을 하고있습니다.》고 했다.

죽지랑이 밭으로 가서 가지고간 술과 떡으로 그를 대접하고 익선에게 청하여 곧 득오곡을 데리고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익선은 기어코 못보내겠다고 하면서 허락치 않았다.

때마침 출장관속 간진이 지방의 전세를 관할하면

서 곡식 30석을 성안으로 운반하고있다가 부하 득오곡을 소중히 생각하는 죽지랑의 깊은 속마음을 찬양하는 한편 익선의 벽창호같은 태도를 비루하게 여기면서 그 곡식 30석을 익선에게 주면서 청을 들어주라고 하였다.

그래도 익선은 승낙하지 않더니 간진이 또다시 화려하게 단장한 말안장까지 주니까 그제서야 허락하였다.

조정에 있는 관리가 이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여 익선을 잡아다가 그 더러운 속심을 뚝 떼주려고 했더니 익선이 도망쳐 숨어버렸기때문에 그의 큰아들을 붙들어갔다.

때는 바로 동지달의 매우 추운 날이였다.

그를 성안의 못가운데서 목욕을 시켰더니 곧 얼어죽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모량출신의 벼슬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아서 다시는 중앙관청에 발을 못붙이게 하였으며 중으로도 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중이 된 사람이라도 큰 절에는 못들어서도록 하였다고 한다.

득오곡이 《모죽지랑가》를 짓게 된것은 이처럼 죽지랑이 자신과 어머님의 생활을 걱정해주고 사랑하여주었기때문이라고 한다.

《나도 차 한잔을 얻어마실 연분이 있는가?》

충담은 신라 경덕왕때 왕과 인연맺은 중으로 되였다. 그는 왕의 통치를 위한 향가 《안민가》를 지어 왕의 불교고문으로 등용되였다.

경덕왕은 24년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어느 왕보다도 불교에 충실한 신도였다.

그래서 왕은 자주 인연맺은 중들을 궁중에 불러들여 그들을 통하여 재변을 가시고 자기 통치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다.

지어 자신이 남자구실을 못하여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되자 왕비를 갈아치우는 한편 덕망있는 중과 부처의 힘을 빌어 아들을 보려고 하였다. 그러던 어느해의 3월삼질날이였다. 귀정문의 다락우에 나와 앉은 왕은 측근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가 길가에 나가 중 한명을 데려올수 없을가?》라고 하였다.

이때 마침 중 한명이 누비옷에 벗나무로 만든 삼태

기를 지고 남쪽으로부터 오고있었다.

왕이 그를 보고 기뻐서 문루우로 맞아들였다.

왕이 그 삼태기를 들여다보니 차달이는 도구가 들어있었을뿐이였다.

왕이《너는 대관절 누구인가?》하고 물으니 중이 대답하기를《충담이올시다.》라고 하였다.

왕이 또《어디서 오는 길인가?》하니 충담은《소승이 중삼(3월삼질날)과 중구(음력9월9일)에는 남산 삼화령에 있는 미륵세존님께 차를 달여올립니다. 지금도 차를 올리고 막 돌아오는 길입니다.》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나도 차 한잔을 얻어마실 연분이 있는가?》하므로 충담이 곧 차를 달여 바치였는데 차맛이 희한하고 차종지속에서 이상한 향기가 코를 찌를듯했다.

왕이 묻기를《내가 일찌기 듣기에는 대사가 지은 기파랑을 찬미하는 사뇌가(향가)는 그 뜻이 매우 고상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하니 충담은《그렇소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충담의 말을 듣고난 왕은《그러면 나를 위하여 백

성들이 편히 살도록 다스릴수 있는 〈안민가〉를 지어 바칠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충담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향가를 지어 바쳤는데 그 노래가 바로 《안민가》였다고 한다.

《재물은 지옥으로 가는 근본이다.》

8세기 말엽 향가를 잘 지어부른 신라의 명망높은 중인 영재는 늘그막에 지리산에 들어가 은거하려고 가던 차에 함안 남쪽의 대현령에 이르러 60여명의 농민봉기군과 만나게 되였다.

농민봉기군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 영재는 칼을 받으면서도 무서운 기색이 없이 태연자약하게 농민군을 대하였다.

그래서 농민봉기군의 두령이 괴이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하였다.

농민군은 평소부터 영재가 향가를 잘 지어부른다는것을 알고있었으므로 그가 진짜 영재인가 하는것을 시험해보려고 그에게 향가를 지으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영재는 그 자리에서 노래를 지었는데 그

것이 바로 《우적가》라는 향가였다.

제 마음의
하는짓 모르던 날은
멀리 지나치고
이제는 숨어살려 가노라
옳지 않은 파계중의
무서운 모습에 다시금 돌아서노니
이런 무기야 아무렇지 않으오
좋은 날을 물릴수야 없지
아 아
오직 이 올라야 할 선의 둔덕
못 들어갈 큰 집이 아니라네

영재가 이 노래를 지어불렀더니 농민봉기군들은 그 노래의 뜻에 감동되여 비단 두필을 선사하였다. 영재는 그것을 땅바닥에 던지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재물은 지옥으로 가는 근본이다. 세상을 버리고 장차 깊은 산에 들어가서 여생을 바치려 하거늘 어떻게 감히 이런것을 받겠는가.》라고 하였다.

영재의 이 말에 감동된 일부 사람들은 그의 제자가 되여 지리산에 들어가 살면서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참요 《계림요》

9세기 후반기~10세기초 재능있는 문장가이며 시인인 최치원(857~?)은 이웃나라에 가서 과거에 급제하고 귀국한 후 벼슬길에 뜻을 두지 않고 자유로운 몸이 되여 각지를 돌아다녔다.

그는 산과 숲속이나 강과 바다가에 정자를 짓고 소나무와 참대를 심으며 책을 많이 쌓아놓고 자연을 노래하는 시를 지어 읊으면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가 늘그막에는 온 가족을 데리고 가야산 해인사에 들어가 은거생활을 하였으며 여기서 생을 마쳤다.

최치원이 각지를 유람할 당시 민간에서는 광대들의 적극적인 예술활동에 의하여 가무, 기악, 탈놀이, 기예 등 종합적인 예술형태인 민간극음악이 성행하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광대들의 예술공연을 보고 그들의 재

주를 생동하게 형상한 훌륭한 한문시를 지어 력사에 이름을 남기였다.

최치원은 당시 민간에서 신라의 멸망을 예언하여 널리 류포되고있던 참요를 한시로 번역하여 《계림요》라는 작품도 지었다.

계림에는 단풍들고
송악산에 솔 푸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노래는 고려태조 왕건이 나라를 창건하려 할 때에 최치원이 창작한것으로 되여있다.

왕건이 비범한 인재로서 반드시 천명을 받들어 고려를 창건할것을 알았기때문에 최치원은 이 시를 지어 왕건에게 보낸것이라고 하였다.

작품에 표현된 계림은 신라를, 송악산은 고려를 가리킨것으로서 신라는 장차 망하고 고려가 창건될것이라는것을 말한것이다.

가곡 《정과정》

12세기 초엽 정서(호는 과정)가 자기 고향 동래에 추방되여 지어 부른 《정과정》은 당시 향가음악의 뒤를 이어 도시서정가요형식의 하나로 발생한 가곡의 대표작의 하나로 되고있다.

정서는 1135~1136년 묘청정변때 봉건정부에 《공》을 세운 정항(1080~1136년)의 아들로서 고려 인종왕의 총애를 받아 왕궁의 일을 맡아보는 벼슬을 지냈다.

1146년에 인종의 아들 의종이 즉위하자 왕은 정서가 자기의 동생을 왕자리에 올려세우려고 했다는 김존중일파의 모함을 곧이듣고 그를 동래에로 추방하였다.

의종은 그를 떠나보내면서 《오늘 그대의 걸음은 조정의 여론에 못견디여 부득이 한 일이니 오래지 않아 조정의 여론이 안정되면 곧 소환할터이니 그리 알라.》라고 하였다.

정서는 고향 동래로 돌아가 임금의 소환명령을 매일같이 기다렸으나 끝내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고향집에서 먹으로 참대그림을 그리면서 임금의 명령을 기다리다 못하여 울분에 잠기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거문고를 타면서 노래를 지어불렀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였다고 한다.

이때 정서가 지어부른 노래를 후세사람들이 그의 성인 《정》과 호인 《과정》을 따서 《정과정》곡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정과정》곡은 정서자신의 《충신련주지사》를 반영한 가곡작품의 하나로 후세에 전해지게 되였다. 가곡 《정과정》은 고려후반기에 가객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게 되였는데 당시 재능있는 시인인 리제현은 가객들이 부르던 《정과정》의 한개 절을 악부시에 담아 읊었다.

날마다 눈물로 옷깃을 적시며
봄산의 두견새처럼 슬피 운다네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지 마시라
이내 마음 새벽달과 새별이 알아주리

《정과정》곡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

《삼진작》이라는 이름으로 궁중음악에 도입되여 악무음악으로 널리 리용되였을뿐아니라 봉건사대부들을 비롯한 량반들속에서 즐겨불리워진 가곡의 하나로 되였다.

궁중악무 《무고춤》에 쓰인 큰 북 《무고》

고려때 궁중음악회의 《무고춤》에 리용된 큰 북인 《무고》는 풍류객들과 자주 사귀면서 시창작과 거문고타기를 즐긴 리혼(1252~1312년)이 처음으로 창안제작한것으로 전해오고있다.

리혼이 《무고》를 처음으로 만들게 된것은 그가 경상도의 바다가 고을인 녕해로 귀양갔을 때였다.

그가 귀양살이를 하게 된것은 왕이 일찍부터 제주도의 민호를 전부 궁중 내고에 예속시키려하자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력설한 까닭에 왕의 감정을 거슬리게 한데 있으며 더우기는 지방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왕의 측근자들의 비행을 단속할것을 제의한데로부터 그자들의 반감을 사게 된데 있었다.

그리하여 리혼은 결국 왕의 측근자들의 모함에 걸려들어 감옥에 갇히였다가 이어 파면당하고 녕해로

귀양가게 되였던것이다.

류배지인 녕해에 도착한 그는 바다우에 떠다니는 뗴목을 얻어서 《무고》라는 큰 북을 만들고 기생들에게 북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었는데 그 《무고》의 소리가 굉장하였다고 한다.

가곡 《자하동신곡》의 창작과 전파

가곡 《자하동신곡》은 일명 《자하동곡》으로 전한다.

《자하동곡》은 당시 노래와 악기를 좋아한 채홍철(1261~1340년)이 개경 송악산아래의 경치좋은 자하동에 있는 자기 집 남쪽에 《중화당》을 지어놓고 여기에 나라의 원로 8명을 맞아들여 《기영회》를 뭇고 한가하게 풍류생활을 하면서 지은것이다.

이 노래는 송악신선이 자하동에 내려와서 기영회를 축수하는 가사로 되여있다.

집은 송악산 자하동에 있고
은구름 중화당 서로 접해있네
오늘의 기영회소식 즐겨듣고

한잔 불로주 드리려 왔소

한잔 마시면 천년 더 사시려니

한잔 들고 또 드시라 여러 손님네

… …

《자하동신곡》은 창작초기에는 개별적인 가비들속에서만 불리워졌지만 그것이 점차 널리 전파되여 궁중연례악에서 연주되였다.

별곡체가요 《관동별곡》

고려 의효왕때 과거에 급제한 안축(1287~1348년)은 언제나 겸직관리로 있었던것만큼 많은 문건들과 가사들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

안축은 그후 헌효왕이 즉위한 후에 강릉 전무사로 되여 외직으로 나갔는데 이때 그는 금강산을 비롯한 관동지방의 명승지를 유람하면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노래한 《관동별곡》을 창작하였다.

《관동별곡》은 별곡체가요의 하나로서 그의 문집에 실려 전한다.

모두 9개절로 된 장가이다.

가요에서는 안축자신이 관동지방에 순찰을 떠나

는 모습과 안변부근,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명승지들을 노래하고있다.

노래는 독특한 악구가 있는 경기체별곡인데 그 곡조는 량반문인들의 한가한 정서를 반영한 느린 가곡조로 되여있다.

거문고악보 《량금신보》

1592년 4월 임진조국전쟁초기에 왕과 량반귀족들이 수도 한성을 떠나 의주로 피신가게 되자 악사로 활동하던 량덕수는 궁중악단에서 나와 자기 고향인 전라도 남원에 피신하여 살았다.

전쟁이 끝난뒤에도 그는 고향에 눌러살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될수록 근절하고 오로지 거문고타는것으로써 세월을 보내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그는 지난날 궁중에 있을 때 잘 알고있었던 김두남이 남원과 이웃한 고을의 현감으로 임명되여 내려왔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래서 그는 거문고를 가지고 현감을 찾아갔다.

현감은 이곳에 와서 량악사를 만날수 있게 되니 몹시 기쁘고도 서글프다고 하면서 곧 관가에 맞아들여

여러날동안 묵도록 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매일같이 거문고를 탔다.

량덕수가 타는 거문고소리를 들으면서 현감 김두남은 자기는 비록 음악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거문고소리야말로 예로부터 전해오는 거문고음악의 근본이 아니겠는가고 하였다.

계속하여 량악사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거문고를 잘 타고 또 능히 악보를 만들어 후세에 전할수 있으니 다시는 거문고연주법이 단절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량악사의 본분이며 장차 그것이 보물로 될것이라고 덧붙이였다.

현감 김두남의 이 말에 량덕수는 쾌히 승낙하고 당시 류행되고있던 가곡들과 거문고연주법을 후세에 전할 목적에서 거문고악보 《량금신보》를 편찬하였다.

그가 편찬한 악보집은 1610년에 현감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 목판본으로 출판되였다.

《량금신보》는 민간판본악보로서는 고악보로서 여기에는 9개곡이 실려있어 가곡의 변화발전과정을

알수 있게 한다.

특히 이 악보집은 악곡들을 음의 시가를 표시하는 것으로 기보하고 슬대잡는법, 줄누르는법, 부호표시와 연주법, 음의 시가표시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놓음으로써 후세사람들의 거문고연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시조 《가노라 삼각산아》에 깃든 사연

1636년 후금(청)침략군의 침입을 반대한 《병자호란》때에 있은 일이였다.

당시 례조판서 겸 비변사 당상직에 있던 김상헌(1570~1652년)은 홍익환, 리명응 등과 함께 적들과의 화의를 극력 반대하였다.

그는 적과의 화의를 주장한 최명길 등에 의하여 조작된 국서초안을 찢어버리고 통곡하였다.

1637년 1월 30일에 경기도 광주의 삼전도에서 침략군과의 《화의》가 체결되자 김상헌은 화의를 반대하였다는 리유로 청나라 심양으로 끌리워가게 되였다.

이때 그가 지어부른 시조가 바로 후세에 널리 알려

진 《가노라 삼각산아》였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등말등 하여라

작품에서 김상헌은 자기의 우국충정을 비장한 심회로 노래함으로써 자신의 애국적사상감정을 표현하고있다.

이 시조에는 외래침략자와는 절대로 타협할수 없으며 끝까지 싸워 민족적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애국적기개가 반영되여있다.

그리하여 이 시조는 후세에까지 대중화되여 널리 불리워졌다.

시조집 《청구영언》의 편찬

17~18세기 이름난 가객인 김천택이 활동하던 시기는 도시서민출신의 시조시인, 가객들이 사회생활에 적극 진출한것과 관련하여 시조, 가곡도 도시서민층의 자유분망한 생활감정을 노래하는 민족가요로 발전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김수장, 김유기, 김우규 등 서민출신의 가객들과 함께 《경정산가단》을 뭇고 오직 가곡음악의 발전과 시조창작에 힘썼다.

《경정산가단》은 당시 사회생활에 적극 진출한 도시서민계층의 사상미학적요구를 지향하여 무어진 진보적인 창작류파로서 여기에는 가객(노래부르는 사람), 률객(악기연주가), 시조시인 등 도시에서 사는 서리들과 일부 중인들이 망라되였다.

김천택은 률객인 김성기와 가객인 김우규와는 각별한 친교관계를 맺고있는 사이였던만큼 김성기가 거문고를 타면 이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군하였으며 김우규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의 작품들을 후세에 전하였다.

《경정산가단》의 중심인물로 활동하던 그는 우리 나라의 력대 가곡, 시조작품들을 후세에 전할 목적으로 1727년(영조3년)에 시조집《청구영언》을 편찬하였다.

이 책의 서문에서 그는 우리 말과 글로 된 가곡의 우수성을 밝혔다.

그는 《오로지 우리 말을 쓰고 간혹 한자를 섞어쓰나 대체로 한글로써 표기하여 세상에 전해지는 우리나라의 가곡은 중국의 악부와는 달라서 보고 들을만한것이 있다.》고 하면서 이 책의 편찬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무릇 문장과 시는 세상에 간행되여 후세에 영구히 전해져서 천년을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노래는 화초의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새와 짐승의 좋은 노래가 귀전을 스쳐사라지는것과 같아 한때 입으로 불리운 후에는 사라져서 후세에 전해지지 않으니 개탄스럽고 아깝지 않은가. 그래서 고려말부터 조선봉건왕조에 들어선 이래의 이름난 벼슬아치들과 큰 선비들 및 이름없는 거리의 서민들과 려염집 아낙네들의 작품을 하나하나 수집하여 와전된것을 바

로잡고 잘 베껴서 <청구영언>한권을 만들어 당세의 노래즐기는 사람들이 입으로 부르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펼쳐서 읽도록 널리 보급하려 한다.》

그가 편찬한 《청구영언》에는 고려때부터 18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전해오는 노래 1 015수(시조 998수, 가사 17수)를 수집정리하여 당시 발전하고있던 가곡의 류형과 조식에 맞게 묶어놓음으로써 후세사람들이 보고 쉽게 부를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당시까지 잘 알려진 시조 창작가 140명에 대한 간단한 경력을 첨부하였다.

고악보 《대악전보》, 《대악후보》

《대악전보》와 《대악후보》는 1759년(영조 35년)에 왕명으로 편찬된 고악보집이다.

조선봉건왕조 영조때 봉건정부에서는 이미 15세기에 창작되여 궁중음악에 써오던 조선아악에 기초하여 봉건적인 례악제도를 복원하기 위하여 악보편찬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명망높은 학자인 서명응(1716~1787년)은 이 악보편찬사업을 주관하게 되였다.

그는 장악원 악사들과 함께 세종, 세조때의 궁중 음악에 널리 쓰이던 악곡들을 수집정리하여 악보집 《대악전보》와 《대악후보》를 편찬하였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서명웅은 세종때의 음악과 세조때의 음악을 분류하여 《전보》,《후보》로 하여 모두 16권으로 편찬하였다고 하였다.

이때 편찬한 《대악전보》(전9권)에는 《세종악보》에 실려있는 악곡들을 비롯하여 세종때에 쓰이던 곡들이 포함되여있었다. 그러나 이 악보집은 1894년 청일전쟁때 없어지고 현재 《증보문헌비고》에 그 악곡의 목록만 전해지고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것은 《대악후보》 (전7권)인데 이 악보집에는 《세조악보》에 실려있는 악곡들과 함께 세조때에 많이 리용되던 악곡들이 수집정리되여 있다.

그리하여 《대악후보》는 중세기 우리 나라 민족음악연구에서 귀중한 고악보유산으로 되고있다.

거문고악보 《휘어》

《휘어》는 18～19세기 초엽의 문인학자인 오희상(1764～1834년)이 편찬한 거문고악보집이다.

오희상은 황해도 해주사람인데 그는 어려서부터 형 오운상에게서 글을 배웠으며 1800년에 서룡보의 추천으로 하급관리로 되였다.

그는 인차 벼슬을 그만두고 10여년간 풍류방에서 거문고를 타면서 시나 읊는 풍류생활로 세월을 보냈다.

1815년(순조 15년)에 그는 높은 벼슬을 받고 얼마간 임금에게 글을 강의하다가 사퇴하고 광주 휘악산에 들어가 살았다.

이때 봉건정부에서는 그에게 여러가지 벼슬을 내려 소환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생애의 말년까지 오직 거문고를 벗삼아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휘악산에 있는동안 그는 거문고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당시까지 전해오는 악곡들과 자신이 창작한 악곡들을 채보하여 후세에 전할 목적으로

거문고악보집인 《휘어》를 편찬하였다.

이 악보집을 1851년에 리경순이 목판본으로 출판하였다.

전후 두편으로 되여있는 《휘어》의 전편에서는 앞선시기부터 전해오는 거문고악보들을 수집정리하여 그 기보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주고있을뿐아니라 편자의 음악리론적분석을 주고있다.

그는 여기서 민간음악기록법에 대한 해설을 주고있는데 이것은 오랜기간 계승되여온 민간악보의 기보법을 정확히 해득할수 있게 한다. 특히 그는 오랜 기간의 거문고연주과정에서 창안한 박자기록법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그리하여 후세의 거문고연주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후편에서는 순수 기악곡들을 비롯하여 18～19세기초에 널리 연주되고있던 기악곡들과 성악곡 등 52개의 악곡들을 싣고있다.

이러한 많은 기악곡들과 가곡작품들은 당시 도시음악, 민간음악의 발전면모를 알수 있게 하는 귀중한 민족음악유산으로 되고있다.

일 화

공후인의 창작

조선음악사에 첫 일화를 남긴 음악가는 고조선의 재능있는 녀류음악가였던 려옥이다.

고조선의 수도 평양의 대동강나루가에서 남편 곽리자고와 사이좋게 살면서 서정가요 《공후인》을 창작하여 13줄의 소공후로 연주한 려옥은 민간음악가였다.

그는 고대노예소유자사회에서 가난하고 무권리한 배사공의 안해로서 빈궁한 가정생활속에서도 음악을 몹시 사랑하였으며 항상 공후라는 악기를 타는것을 락으로 삼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려옥은 이날도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공후를 타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이른 새벽에 대동강나루터에 나가 하루종일 일하고 돌아온 남편이 다음과 같은 비극적인 이야

기를 전해주었다.

《이른 새벽에 내가 배를 저어 나루를 건느고있을 때였소. 머리흰 사나이가 머리를 풀어헤친채 손에 병을 들고 사품치는 강물에 뛰여들어 강을 건느기 시작하였소. 그의 안해가 남편을 뒤쫓아와 부르면서 강을 건느지 말라고 만류하였으나 남편은 듣지 않고 물에 빠져죽었소. 이에 그의 안해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소리가 심히 슬프고 애처로웠소. 곡을 마치자 자기도 강물에 몸을 던져 죽고말았소.》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려옥은 이날 강물에 빠져죽은 그들부부를 불쌍히 여겨 공후로 그 애달픈 사연을 노래에 담아 《공후인》을 창작하였다.

이렇게 되여 려옥이 지은 서정가요 《공후인》이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그가 창작한 《공후인》은 듣는 사람마다 눈물없이는 들을수 없으리만치 슬프고도 애절한 곡조로 된 노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공후인》의 음악은 전해오지 않아 잘 알수 없고 다만 한시로 번역된 가사만이 지금까지 전해오고있다.

강 건느지 말랬는데
왜 굳이 건느셨소
물에 빠져 죽었으니
님아, 이 일 어이하오

민요 《방아타령》의 창작

5세기 중엽 신라의 수도 경주의 량산기슭에는 백결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안해와 함께 살면서 집살림이 몹시 가난하여 항상 옷을 누덕누덕 기워입었다.

그래서 그의 옷은 마치 메추리를 매단것 같았다. 《백결》이란 별명도 이로부터 생겨났던것이다.

백결은 구차한 생활속에서도 선비로서의 체모를 잃지 않고 학문에 열중하여 당시 수도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동쪽마을의 《백결선생》으로 부르면서 존경하였다.

그는 빈궁속에서도 안해와 함께 가정생활을 락천적으로 해나갔으며 가보로 여기는 거문고를 이를데없이 사랑하였다.

그러던 어느해 설명절을 앞둔 날이였다.

이웃집들에서는 설명절을 잘 쇠기 위하여 여기저기에서 조를 찧느라고 방아소리가 요란스레 들려왔다.

방아소리를 들은 그의 안해가 말하기를 《남들은 모두 찧을 조가 있어 방아질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만 찧을 조가 없으니 어떻게 설을 맞겠소.》하면서 몹시 서러워하였다.

안해의 비통한 말을 듣고 측은한 마음을 억제할수 없었던 백결은 거문고로 방아소리를 내여 설명절을 잘 쇨수 없어 안타까와하는 안해의 심정을 위로해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사람이 죽고 사는것은 운명에 있고 부귀도 하늘에 매여있으니 그것이 오더라도 막을수 없는것이고 그것이 가더라도 붙잡지 못하는것이요. 그대가 무엇때문에 그리 서러워하는고. 내 그대를 위하여 방아노래를 지어서 위로해주리다.》하고 말하며 슬그머니 거문고를 잡아당기여 무릎우에 놓고 줄을 골라 튕기여 방아소리 한 곡조를 타기 시작하였다.

이때 그가 탄《방아타령》은 매우 처량하였는데 그것이 음악으로 세상에 전해지게 되였다고 한다.

가요 《서동요》의 창작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서동은 백제30대왕인 무왕의 어렸을 때의 이름이였다.

그는 당시 백제수도인 사비성의 남쪽에 집을 짓고 사는 홀어머니품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능과 도량을 나타내였다.

그는 평소에 마를 캐여 팔아 생업을 삼았으므로 사람들이 서동이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다고 한다.

서동이 가요 《서동요》를 지어 부르게 된것은 당시 신라 진평왕의 셋째딸인 선화공주가 매우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자기 안해로 삼기 위한 것이였다.

자나깨나 항상 선화공주를 그려보던 서동은 신라의 수도 경주로 가서 아이들에게 마를 나누어주었는데 이로 하여 아이들이 그를 몹시 따르게 되였다.

이에 서동은 노래를 지어 여러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불러 널리 퍼지게 하였다. 그가 지은《서동요》는 향가인 동시에 어린이들이 부른 동요이기도 하였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서
서동이를
밤이면 안고잔다네

이 동요가 신라의 수도장안에 널리 퍼져 대궐안까지 들어가게 되자 조정안의 여러 관리들이 말썽을 피우는 바람에 왕은 할수없이 선화공주를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궁중에서 쫓겨난 공주는 귀양살이를 해야 할 처소로 가는 도중에 서동을 만나게 되였다.

이때 서동은 선화공주를 가까이 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부부가 되여 백제로 돌아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라 진평왕은 서동에게 편지를 자주 보냈다.

이로 하여 서동은 민심을 얻어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였다고 한다.

《음악이 어찌 죄가 되겠는가.》

신라의 국원소경(충주)에 찾아가 우륵에게서 12곡을 배우고난 계고, 법지, 만덕이 그것을 5개곡으로 줄여서 신라궁중음악에 처음 도입하려고 하였다.

이때 신라궁중안의 일부 간신들은《그 악곡들이 멸망한 가야국의 음악이니 취할수 없다.》고 하면서 가야금음악을 궁중음악에 도입하는것을 반대해나섰다.

그렇지만 왕은 《가야왕이 음란해서 자멸한것이지 음악이 어찌 죄가 되겠는가? 대체로 성인이 음악을 제정함은 인정을 준절케 하는데 있거늘 나라가 잘 다스려지거나 어지러워지는것은 음악에 연유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궁중음악에 도입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장가 《실혜가》에 깃든 이야기

《실혜가》는 신라의 문인선비인 실혜라는 사람이 지어부른 장가이다

신라 진평왕때 실혜는 조상의 음덕으로 상사인의

벼슬에 올랐다.

당시 그에게는 하사인의 직에 있는 진제라는 동료가 있었다.

실혜는 항상 옳은 립장에 서서 그릇된 현상과는 타협할줄 모르는 성미였으므로 진제와 같이 일하는 동료였지만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진제는 인품으로 볼 때 아첨을 잘하여 왕의 총애를 받는 간사한 신하였기때문이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정직하고 대바른 실혜를 항상 시기하고 미워해오던 진제가 왕에게 참소하기를 《실혜가 지혜는 없고 담기가 많아서 걸핏하면 기뻐하거나 성을 내며 임금님의 말이라도 자기 비위에 맞지 않으면 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징계하여 고쳐주지 않는다면 그가 장차 란을 일으킬것이니 왜 그를 내쫓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가 굽신굽신하기를 기다려서 다시 등용하는것도 늦지 않을것입니다.》 라고 하니 왕이 그의 참소를 옳게 여겨 실혜의 벼슬을 강직시켜 죽령남쪽에 있는 랭림고을의 원으

로 보내였다.

당시 이 사실을 알게 된 충신 한사람이 실혜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할아버지때부터 충성스럽고 의젓한 자격이 있기로 세상에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 간사한 신하의 참소와 훼방에 의하여 멀리 죽령바깥 궁벽한 고을에서 외직살이를 하게 되였으니 원통하지 않는가. 왜 바른 말로써 변명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실혜가 대답하기를 《옛날 굴원이 홀로 정직하다가 초나라에서 내쫓기게 되였고 리사가 충성을 다하다가 진나라의 극형을 받았다. 이처럼 간사한 신하가 임금을 속이면 충신이 배척을 당하는것은 옛날에도 그러하였거니 내가 무엇때문에 그리 슬퍼하겠는가》라고 하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실혜는 드디여 수도 경주로부터 랭림고을로 떠나면서 장가를 지어 자기의 결백한 뜻을 표시하였는데 이것이 세상에 전해져서 《실혜가》가 되였다고 한다.

천지신인을 감동시킨 향가 《혜성가》

전기신라시기에 융천이란 중이 지어부른 향가《혜성가》는 불교적색체를 띠지 않고 천지신인을 감동시키리만치 신비한 위력을 발휘한 노래로 되여있었다고 한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진평왕때 신라의 귀족자식들이 천하절승 금강산구경을 떠나려하다가 살별(혜성)이 나타난것을 보고 불길한 징조인가 하여 유람을 그만두려고 하였다.

이때 융천이 《혜성가》를 지어 불렀더니 살별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왕은 귀족자식들을 금강산으로 떠나보냈다고 한다.

《혜성가》는 이러하였다.

동쪽 옛 나루
태평스런 고장을 바라보고
왜병이 들어왔다고
변방에서 봉화를 올리는구나
세 사람이 명산구경간다는 말듣고

달수를 부지런히 헤이는데
길 쓸 별을 바라보고
혜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아 아
별이 드르르 떠갔더라
벗아 무슨 불길한 혜성이 있을가

작품에서는 살별의 출현에 대하여 아침노을이 비낀 동해의 신기루같기도 하고 밤에 올리는 봉화같기도 하다고 하면서 살별은 길을 쓸어줄 비자루처럼 떠있고 달은 앞길을 밝히여 중천에 떠있으니 이것은 좋은 징조로 되지 무엇때문에 나쁜 징조로 되겠는가고 비유의 수법으로 노래하고있다.

다시 살아난 잣나무

향가를 잘 지은 신충은 어진 문인선비로서 신라 효성왕이 왕위에 오르기전 세자로 있을 때부터 그와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자주 바둑을 두군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세자는 잣나무밑에서 신충과 바둑을 두다가 말하기

를 《내가 왕이 된 다음에는 그대를 잊지 않고 표창하여 벼슬에 등용할테다. 나는 이것을 저 잣나무를 두고 맹세하겠다.》고 하였다.

이 말에 신충은 너무나도 감지덕지하여 일어나서 절까지 하였다.

이때로부터 몇달뒤에 선왕(성덕왕)이 죽고 세자가 왕자리에 올라 공로있는 신하들을 표창하고 벼슬에 등용하면서도 신충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를 차례에 넣지 않았다.

이에 신충은 효성왕에 대한 원망과 나무라움을 금치 못하여 향가 《원가》(일명 《잣나무가》)를 지어 앞서 바둑을 두면서 왕이 다짐했던 그 잣나무에 붙여놓았더니 나무가 갑자기 누렇게 시들어버렸다고 한다.

이 사실을 들은 효성왕은 괴상스럽게 여겨 사람을 보내여 그 사연을 알아보게 하였다. 신하가 돌아와 신충이 잣나무에 붙인 노래를 바쳤다.

한참 무성한 잣나무
가을이 되여도 이울지 않누나

내 어찌 잊으랴 하시더니
우러러 뵈옵던 그 얼굴이 고쳐질줄이야
달그림자 고인 련못에
흐르는 물결이 모래를 이기듯
그분의 모양을 바라보고있으나
세상일은 이렇게 변해가네

이 노래를 받아본 왕은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내가 정사에 바쁘다나니 가깝게 지내던 사람을 잊어버릴번 했구나!》라고 하면서 곧 신충을 불러들여 벼슬을 주었다. 그랬더니 시들어졌던 잣나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향가 《도솔가》의 창작

《도솔가》는 신라의 이름난 중인 월명이 지어부른 향가이다.

760년 (경덕왕 19년) 4월 초하루날이였다.

해가 둘이 나타나서 열흘이 되도록 그대로 있었다. 이때 천문맡은 관리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중을 청해다가 《산화공덕》(꽃을 뿌려 공양하는 불교의식)을

베풀면 《액막이》(하나의 피해를 물리치는것)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왕은 조원전이라는 궁전뜰에 제단을 쌓게 하고 청양루에 거동하여 중을 기다리고있었다.

바로 이때에 월명은 공양하려 사천왕사를 떠나 청양루의 남쪽길로 걸어가고있었다.

월명을 본 왕은 그를 궁전에 불러들여 제단에 올라 기도를 드리고 불교노래를 지어부르도록 하였다.

월명이 아뢰되 《소승은 원래 안다는것이 향가뿐이고 불교노래는 서투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이왕 인연닿은 중을 만났으니 향가를 지어바쳐도 괜치 않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월명은 그 자리에서 향가 《도솔가》를 지어불렀다.

오늘 이리 산화가 부를제
뽑히여 나온 꽃아 너희들은
참다운 마음이 시키는 그대로
미륵님을 모시여라

이 《도솔가》를 해석하면 《청양루에서 부른 이날의 산화가를 한송이 꽃인양 하늘로 보냅니다. 지극한 정성다하여 도솔중의 부처님 모시려고》라는 뜻이다.

이것은 결국 월명이 향가로써 《산화공덕》을 대치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월명이 《도솔가》를 지어불러서 《산화공덕》을 하였더니 얼마후에 과연 해의 괴변이 없어졌다.

왕은 월명에게 좋은 차 한봉지와 수정으로 만든 념주 백여덟개를 상으로 주었다고 한다.

고을원의 극진한 례의와 술대접을 받은 거문고명수

9세기 초엽 신라봉건정부에서는 재능있는 거문고명수 귀금이 지리산에 들어가 살면서 좀체로 나타나지 않게 되자 신라의 궁중음악에서 거문고음악이 단절될가봐 매우 꺼려하였다.

그리하여 신라왕은 이찬 윤흥을 지리산가까이에 있는 남원에 파견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귀금한테서 거문고음악을 전습해오도록 하고 그에게 남원고을의 업

무를 맡기였다.

이찬 윤흥은 임지에 도착하여 총명한 소년들인 안장, 청장 두사람을 선발하여 지리산에 보내여 귀금에게서 거문고곡을 배워오도록 하였다.

이때 귀금은 그들에게 거문고타는 법을 가르쳐주기는 했으나 자기의 미묘한 기법과 자기가 창작한 새로운 악곡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 소식을 받게 된 윤흥은 자기가 직접 처와 함께 지리산에 들어가서 귀금을 만나기로 결심하였다.

지리산에 들어간 윤흥이 귀금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 임금이 나를 남원으로 보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생의 거문고타는 미묘한 기법과 새로운 악곡을 전습해오라고 함인데 지금까지 3년이 되였으나 선생이 비법을 가지고있으면서 가르쳐주지 않고있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임금을 찾아가 말씀드리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리고나서 윤흥은 술병을 들고 그의 처는 잔을 들어 술을 권하면서 극진한 례의와 성의를 다하였다.

귀금은 윤흥부부의 극성스러운 례절과 정성을 받은 후에야 자기가 소유하고있는 거문고의 미묘한 기법과

비밀로 부치던 《표풍곡》등 3곡을 안장과 청장에게 가르쳐주었다고 한다.

량반유생들을 골려준 이야기

15세기 후반기 성종때 가야금명수인 김복산은 장악원의 맹인악공으로 활동하였을뿐아니라 부유한 량반귀족들의 집에도 자주 초빙되여 가야금을 훌륭히 연주하였다.

그가 량반귀족들의 유흥에 참가하여서는 그들의 향유물로 된 기생, 첩들이 노래부르고 춤추는것을 가야금으로 반주해주면서 놈들을 골려준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김복산이 활동하던 당시 한성 남대문밖의 3리지점에는 심생, 류생이라는 량반유생들이 살고있었는데 모두 잘사는 호부자자식들이였다.

그들은 날마다 고운 계집들틈에서 술에 취해있었다.

어느날 김복산은 심생의 집에서 벌린 유흥장에 초빙되여가서 심생의 첩인 접련화(관명인데 그의 아명은 심방이였다.)가 부르는 노래와 춤의 반주를 해주었

다. 가야금과 노래소리에 맞추어 흥을 돋구면서 술잔을 주고받던 량반자식들은 술이 거나해지자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밤이 이슥하여 좌중의 한사람이 입을 열어 《우리 제가끔 지난날의 재미있는 경력을 이야기해서 서로 웃기기로 합시다.》라고 하자 여러 사람이 모두 《좋소.》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사람, 저사람이 자기의 우스운 경력을 털어놓아서 껄껄거리고 킥킥거리였다.

바로 이때 김복산이 한몫 끼여들어 말하였다.

《나도 이야기 하나 합시다. 내가 얼마전에 한 집에 갔었는데 그 역시 잘사는 량반의 집입니다. 제노라하는 기생도 두어명이나 놀음에 참여하였습니다. 술자리를 파한 다음 각각 기생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기생중에는 심방이라고 하는 녀성이 노래를 제일 잘 부르더군요. 그 녀성이 나와 함께 잤지요.》

그러자 집주인인 심생이 허구픈 웃음을 지으면서 《그 참 재미있는 일일세. 또 이야기를 하세나.》라고 하였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 심생의 얼굴표정을 살피면서 말하기를 《가야금소리, 노래소리로 밤을 새우는것이

좋소. 이야기는 해서 무얼하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기생들도 노래부르지 않고 여느 사람들도 흥이 없어져서 그만 흩어지고 말았다.

이때 문밖으로 나오면서 류생이 김복산더러 말하기를 《주인의 첩이 바로 심방일세. 자네 그 무슨 미친소리를 짖어대고있는것인가? 사람의 얼굴을 못보니까 그 지경이지. 판수(소경)란 좋지 못한 물건이야.》라고 하였다.

김복산이 대답하기를 《나야 그저 관명이 접련화라는것만 알았지 누가 그의 아명이 심방인줄이야 알았나요》라고 했다.

이날 밤에 있은 사실이 이웃사람들속에 널리 전해져서 웃음거리로 되였다고 한다.

부귀영화도 한바탕의 봄꿈

리마치는 15세기 후반기 세조, 성종때의 광대로서 민간에서 오랜 기간의 연주활동을 통하여 당대 거문고명수로 이름을 날리였다.

그는 부유한 량반귀족집의 생일잔치, 연회에 초빙되거나 국가적인 의식행사로 진행된 《나희》에 참가

하여 특출한 거문고연주솜씨를 보여줌으로써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일찌기 리마치에게서 거문고를 배우면서 그가 타는 거문고소리를 귀가 젖도록 들은 성현은 그의 거문고 타는 솜씨와 독특한 소리를 두고 《정밀하고 미묘한 것이 더없는 높이에 도달한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날마다 리마치를 집으로 데려왔고 간혹 같이 자기까지 하면서 그의 거문고소리를 귀가 젖도록 들었는데 그 소리가 거문고밑에서 나오는 것 같고 줄이 울리는것 같지 않아서 마음과 정신이 쾌락해지니 참으로 둘도 없는 기예이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리마치가 당대의 뛰여난 거문고명수였다는것은 성현의 이러한 평가와 함께 그의 거문고타는 솜씨를 직접 목격한 김안로가 자기의 저서에 쓴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리마치가 장손가락으로 제1궁을 짚은 다음 다른 손가락으로 가볍게 또는 무겁게 이줄, 저줄을 눌렀다가 떼거나 흔들고 굴리면 5음 6률이 맑거나 흐린소리, 높거나 낮은소리, 가늘고 잦은소리가 모두 여기서 나

왔다. 그의 거문고타는 솜씨는 애초부터 보통 사람과는 아주 다르기때문에 음악을 좀 아는 사람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그를 청해갔다. 언제나 달빛이 가득한 빈 마루에서 그가 손닿는대로 한번 타기 시작하면 마치 바람이 일고 물이 솟구치며 하늘이 막히고 귀신이 휘파람을 부는듯 하여 듣는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케 한다. 어느날 모인 손님들이 모두 고급관리들인지라 그는 한껏 솜씨를 자랑하였다. 처음에는 구름이 떠가고 물이 쏟아지는듯 한창 끊치지 않고 쭉 계속하더니 한가닥이 열릴듯 얼른 도로 닫히면서 슬픈 고비인지 건들대는 대목인지 진정키 어려웠다. 좌상의 손님들은 음식맛도 잊어버리고 술잔도 놓고 귀에 아무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골똘히 무엇을 생각하는듯 멀거니 고목나무처럼 되여버렸다. 그때 질탕 한가락으로 선듯 넘어가니 버들개지가 날리고 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는듯 주위의 공기가 화창해지는 동시에 맥이 풀리고 마음이 취하는듯 팔다리까지 나른해졌다. 또 한번 장쾌하고 급격한 가락으로 바꾸니 기발이 눕고 북소리가 일어나자 일백필의 군마가 일제히 달리는듯 기운이 솟고 정신이 돌아서 몸이 움직여지고 어깨가 으쓱

거려짐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사람들은 《리마치야말로 옛날의 유명한 그 어떠한 거문고연주가보다도 못지 않는 천재이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리마치는 천민출신의 광대로서 한생을 거리와 마을을 떠돌아다니면서 거문고를 타서 생계를 유지해갔다.

그는 부유한 량반귀족의 연회에 초빙되여서는 거문고를 연주하여 그들의 유흥을 돋구어주는데만 그치지 않고 한가하게 세월을 보내며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량반을 매우 가소롭게 여기면서 비웃기도 하였다.

어느날 량반귀족들이 많이 모인 연회때에 리마치는 한바탕 거문고타는 솜씨를 보이고나서 《사람의 일생이 백년이라고 한대도 불과 눈한번 깜짝할 동안이다. 부귀영화도 한바탕의 봄꿈이니 제 당대 암만 호기를 부리고 산들 후세에 그 누가 아는가? 그래도 문학을 하는 사람은 자기 저작을 남기고 서화가는 자기 그림이나 글씨를 남기여 후세에까지 그 이름이 전해갈것이다.》라고 하면서 량반귀족들의 무위도식하는 생활

을 야유하였다고 한다.

《공경치 못한 광대놀이》를 했다하여 귀양간 광대

15세기말~16세기초 연산군때 공결은 해마다 년말에 진행되던 《나희》에 참가하여 여러가지 잡희를 통하여 봉건통치배들의 탐오현상과 죄행을 폭로규탄하고 풍자조소한 이름난 광대였다.

1499년 섣달 그믐날 밤에 진행된 《나희》때였다.

이날 왕은 인양전에서 탈놀이를 구경한 다음 광대 공결에게 출연하도록 명령하였다.

공결은 리신이란 사람이 지은 고된 농사일을 애달프게 여긴다는 《민농시》를 읊고나서 《대학》의 3강령 8조목의 내용들에 대하여 이야기거리로 쭉 엮어 나갔다.

이때 그가 읊은 《민농시》는 이러하다.

한낮에 논김을 매노라니
벼포기에 땀방울이 흘러든다
소반의 밥 한알한알이
고되게 이루어진줄 누가 알랴

시에서 공결은 해별이 내리쬐는 여름철에 논밭에서 고되게 농사일을 하는 농부들을 생각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량반통치배들을 신랄하게 풍자조소하였다.

이날 《대학》의 내용을 이야기거리로 엮어나가는 공결의 거동을 살피던 연산군은 내시를 시켜 《네가 글을 해득하는가? 책을 몇권이나 읽었는가?》라고 묻게 하였다. 공결이 대뜸 대답하기를 《글은 모르고 그저 전해들었을뿐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연산군은 그렇다면 물러나서 탈춤을 춰보라고 했다. 그러나 공결은 그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하여 공결은 폭군 연산군에게 걸려들어 《공경치 못한 광대놀이》를 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였다는 죄아닌 《죄》를 지고 의금부에 감금되여 형장 60대를 맞고 먼 지방으로 귀양가게 되였다.

광대놀이로 연산군을 풍자조소한 공길

공길은 공결의 동생으로서 연산군에게 걸려들어 형장을 맞고 귀양간 형의 원한을 풀기 위해 봉건통치배들의 비행을 풍자조소하는 잡희를 여러해동안 준비하였다.

그는 포악무도한 연산군과 호의호식하는 늙은 재상들을 풍자조소하기 위하여 《로유희》(늙은 유생들의 놀이)를 만들어가지고 1505년 (연산군 11년)12월의 《나희》때 출연하였다.

공길은 《로유희》에 대한 상연에 앞서 연산군을 추어올리는듯 한 말로써 왕을 비웃었다.

그리고나서 그는 《로유희》라는 잡희에 출연하였는데 그 내용인즉 《론어》를 중얼중얼 외우는 늙은 유생들에 의탁하여 당시 호의호식하는 늙은 재상들을 풍자조소하는것이였다.

이때 그가 이야기거리로 엮어나간 한 대목을 보면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다워야 합니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면 설사 쌀이 있은들 내가 먹을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것이였다.

이것은 당시 폭군이며 부화방탕한 연산군과 그를 비호하는 늙은 재상들에 대한 신랄한 조소였던 것이다.

이날 공길의 《로유희》라는 잡희를 보고난 연산군은 이야기거리로 엮어나가는 공길의 말이 공경스럽지

못하다고 하면서 형장을 치고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광대놀음도 유익한것이다.》

어숙권의 《패관잡기》에 의하면 중종때 광대들은 지방관리로서 탐오행위를 아무 꺼림낌없이 감행하는 정평부사 구세장의 죄행을 풍자한 놀이를 만들어가지고 《나희》때 상연함으로써 그를 파면시키게 하였다.

욕심이 몹시 사나운자였던 구세장은 정평고을에 말안장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관청마당으로 불러들이였다.

값을 흥정하면서 싸다거니 비싸다거니 며칠을 두고 아귀다툼을 하던 구세장이 결국 그 말안장을 관청돈으로 사가지였던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고을의 광대들은 구세장의 롱간행위를 형상한 놀이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나희》때 상연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탐장죄를 받게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탐장죄란 탐오랑비한 관리들에게 적용되던 죄의 항목으로서 이 죄에 한번 걸

리면 본인은 물론 아들, 사위들도 모두 벼슬에 등용할수 없었다.

정평부사 구세장에 대한 사실을 놓고 어숙권은 《광대놀음도 유익한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후전곡》에 담겨진 슬픈 사연

연산군때 무풍정 총은 동생 한산정 정과 함께 음률에 조예가 매우 깊었으며 거문고명수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그가 거문고를 가지고 제일 즐겨타던것은 《후전곡》인데 그 묘미가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후전곡》은 슬픔을 자아내는 곡조로서 당시 거리의 아이들이나 마을의 부녀자들까지도 다 즐겨부르는 노래였다고 한다.

그가 자주 이 《후전곡》을 거문고가락에 맞추어 타군 하였는데 어느날 재상인 김류는 그가 타는 거문고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마치 궁중안의 모란꽃이 맑은 하늘아래 활짝 핀듯 하구나.》라고 감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무풍정 총은 이 《후전곡》을 잘 탄것으로

하여 죄아닌 죄를 짓게 되였다.

1498년에 그는 《성종실록》의 력사편찬문제로 처형당하게 된 김일손과 련루되여 강혼과 함께 연산군에게 불리워가서 심문을 받게 되였다.

이때 연산군은 김일손을 불러내여 네가 《성종실록》에 세조때의 일을 기록한 사실을 바른대로 말하라고 하면서 《너는 또 음악과 노래에 대한 문제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어디서 들었느냐?》라고 하였다.

일손이 말하기를 《신이 휴가를 받고 독서당에 있을 때 성종이 술과 안주를 보내주었는데 그 남은것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화나루가에 이르러 거문고소리가 듣고싶어서 무풍정 총을 불렀더니 그는 거문고를 가지고와서 <후전곡>을 탔습니다. 신이 총에게 <왜 그 곡을 좋아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후 력사를 편찬할 때에 신은 진정 임금을 사랑하여 기록한것이지 애당초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강혼이 말하기를 《지난 계축년(1493년)에 휴가를 받고 김일손, 신용개와 함께 독서당에 있었는데 무풍정 총이 쪽배에다 거문고와 술을 싣고 와서 독서

당 앞강에다 대놓고는 신과 신용개를 초청하였습니다. 총이 거문고를 타자 김일손은 <이 곡조가 왜 이리 처량한가.>라고 하였고 신용개는 <오늘은 그저 술이나 마시자. 곡조야 어떻든 말할것이 못된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무풍정 총은 말하기를 《일손이 독서당에서 사람을 보내여 신을 불렀기때문에 신은 작은 배를 타고 거문고와 술을 가지고 가서 일손을 만났습니다. 일손이 기록한 노래곡조에 대한 문제와 함께 왔던 사람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날 연산군은 강혼, 신용개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놓아보내라고 하였다.

김일손은 결국 처형당하고 무풍정 총은 가족과 함께 절해고도의 먼 섬에 류배가게 되였다.

그후 1504년(연산군 10년)에 무풍정 총의 7부자(아버지 종, 형 룡성정 원, 동생 한산정 정, 화원정 간, 금천정 변, 청양정 건)는 연산군에 의하여 한시에 살륙당하였다고 한다.

조정관리들을 비난한 《장가》

16세기 전반기 리장은 재주와 기백이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익살과 롱담을 일삼아온 문인선비로 이름이 났다.

그는 김안로를 비롯한 3정승과 조정관리들을 비난하는 장가(긴노래)를 지어부름으로써 그들이 실시하고있는 부패한 정치와 파렴치한 행위를 조소하였다.

리장이 이러한 장가를 지어부르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그가 평소에 극성스럽게 섬기던 리행이 《죄》를 받고 귀양을 갔는데도 3정승과 관리들이 임금한테 공정한 의견을 제의하여 구원하지 않은 원한을 품고 있었기때문이였다고 한다.

1532년(중종27년) 12월 15일 저녁이였다.

이날 생원 리준인은 자기 어머니 생일날이라고 하여 리원손, 리추 등 한림, 생원들을 불러다가 술대접을 하였다.

리장은 이미 술에 취해가지고 리준인의 집에 들어갔다.

각각 술잔을 돌리면서 끼리끼리 마주앉아 이야기하고 마시기도 하면서 한창 흥이 나던 때에 리장은 3정승과 조정관리들을 비난하여 그들의 성명을 쭉 들면서 이름자와 음이 같은 우리 말로 장가를 지어불렀다.

정광필은 잔글씨로 리홍간과 편지질하네
장순손은 웬 손님이여 한효원은 어느 고을원인가
정만종은 남종질하고 리임은 녀종질하네
조원기는 호기부리고 류관은 도가니 허자는 막자라
최세절은 절개없고 김탁은 큰방울보다 더하지
황기가 기개있으니 권예도 너를 밉다고
채무택은 몹시 간사하건만 임추는 크게 취하였네
심언광이 발광하니 김안로는 나 모르노라

노래가사에서 알수 있는것처럼 리장이 지어부른 《장가》는 김안로를 비롯하여 17명의 정승, 재상, 대간, 시종관들의 이름을 렬거하면서 당시 조정관리들의 부패한 정치를 비난하고 조소하고있는 노래였다.

《중종실록》의 기록에 《요즈음 어디서나 다 그

노래를 부르고있으니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들었을것이다.》라고 한것으로 보아 《장가》는 당시 널리 불리워진 노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리장은 이러한 《장가》를 지어불렀다는 《죄》로 형장 100대를 맞고 경상도 동래로 귀양가게 되였다.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도 묵인하였다는 《죄》로 리준인, 리원손, 리추, 리성의, 리의제, 최침, 한류 등은 벼슬임명장을 박탈당하게 되였다고 한다.

동래에서 19년동안 류배살이하던 리장은 그후 김안로가 패하자 다시 벼슬에 소환되였다고 한다.

저대를 잘 불어 목숨을 건진 주경

주경은 16세기 중엽 명종때 종실계렬의 량반으로서 일찌기 수도 한성에서 저대명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그가 저대명수로 소문난 당시에는 우리 나라 반봉건투쟁사에 잘 알려져 있는 림꺽정이 지휘하는 농민폭동군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었다.

1559년부터 1562년까지 황해도 개성(당시)일대에서는 경기도 양주의 천민백정출신인 힘장사 림꺽정이

지휘하는 농민폭동군이 관청을 습격하고 봉건관리들을 처단하며 감금된 인민들을 구출하는 등 과감한 투쟁을 벌리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1560년경에 저대명수인 주경은 개성으로 가다가 청석골에 이르러 림꺽정농민폭동군에게 붙잡히게 되였다.

폭동군은 그가 종실 단천령 주경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저대를 잘 부는 단천령인가고 하면서 저대를 불어보도록 하였다.

때는 둥근달이 하늘중천에 떠있어 낮과 같이 밝은 밤이였다.

단천령이 팔소매속에서 학의 다리뼈로 만든 짧은 저대를 꺼내여 우조 한가락을 불기 시작하니 수십명의 농민군은 빙 둘러서서 들었다.

마치 룡이 용솟음쳐 하늘에 충돌할 기세인양 우조의 곡조가 울려퍼지더니 어느사이에 계면조의 곡조로 변하여 비장한 감정을 자아내게 하였다.

곡을 들으며 모두다 환희에 찼다가 탄식하더니 지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때 림꺽정은 여러 사람들의 동정을 살펴보다가

급히 손을 흔들어 저대소리를 중지시키면서 《저 량반을 여기에 남겨둔댔자 쓸데가 없다. 당장 돌려보내라.》고 하였다. 이어 자기가 패용했던 작은 칼을 주경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가는 길에 길을 막는자가 있을것이니 이 칼을 보이여라.》라고 하였다.

단천령이 다음날 장단에 도착하니 과연 말탄 두 사람이 나타나 체포하려고 하였다. 림꺽정이 준 칼을 보이니 그들은 큰 소리로 떠들썩하게 《어찌 이런 자들만이 걸려드는가.》라고 하면서 흩어져갔다고 한다.

주경은 이처럼 비록 종실귀족출신의 량반이였으나 당시 저대명수로 이름을 날리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건질수 있었다.

자기 스승을 감동시킨 제자

김성기는 조선봉건왕조 후반기 영조(재위1725~1776년)때에 김천택, 김중열 등 가객들과 친분관계를 맺고 활동한 기악명수이다. 관서지방의 곽산사람인 그는 원래 상방의 궁인으로 활을 잘 쏘아 오위장이 되였으나 활을 버리고 거문고, 퉁소, 비파를 배워 일약 기악명수로 이름을 떨치고 률객으로 활동하였다.

김성기에게 거문고를 처음 가르친 스승은 왕세기라는 유명한 음악가였다. 왕세기는 제자의 거문고연주기량을 높여주기 위해 강한 요구성을 제기한 좋은 점도 있었으나 자기가 새롭게 창작한 우수한 곡조들을 절대로 제자들에게 배워주지 않는 결함이 있었다.

누구보다도 향학열이 높았던 김성기는 스승의 집 창가에 귀를 대고 그가 타는 새로운 가락들을 엿듣고서는 이튿날 아침 스승앞에서 밤새 엿들은 곡조들을 연주하군 하였다. 그것도 음하나, 박자하나, 장단하나 틀림이 없었고 오히려 곡조형상은 자기 스승을 더 릉가할 정도였다.

이러한 사실이 계속 반복되여 의문을 품고있던 왕세기가 어느날 밤 거문고를 한참 타다말고 갑작스레 창문을 열어보니 문밖에는 제자 김성기가 있었다.

김성기는 스승앞에 무릎을 꿇고앉아 버릇없이 곡조를 엿들은것을 용서해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용서를 비는 제자보다 더 바빠난것은 스승 왕세기였다. 그는 새것을 배우려는 열성이 이렇듯 불같은 제자의 마음을 몰라보고 제리속만 채우려 한 자신이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스승은 《아닐세.

속통이 좁고 옹졸한 이 선생을 욕하게. 그대가 그렇게까지 향학심이 강한줄은 내미처 몰랐네.》라고 하면서 제자의 손을 잡고 사죄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김성기는 자기 스승을 감동시킨 제자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백성은 나이가 벼슬이라 했다.》

김성기는 일생을 가창, 기악, 후진양성에 바쳐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그는 항상 민간음악가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량반사대부들의 권세와 전횡앞에서 굽신거릴줄 몰랐다. 김천택이 쓴 글에 의하면 김성기는 강산을 몹시 좋아하여 서호물우에 집을 짓고 호를 《어은》이라고 하면서 해뜨는 아침과 달뜨는 저녁이면 버들방천에 앉아 거문고를 타거나 퉁소를 불었는데 이럴때는 갈매기가 벗이 되여 날아든다고 하였다.

김성기는 강호에서 10여년간을 가객 김중렬과 함께 지내면서 강호의 흥취를 느끼고 제자들도 양성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김성기가 살던 서호강변에

당시 량반사대부들을 등에 업고 전횡을 부리던 호룡이란 자가 나타나 저들패거리들을 모아놓고 놀음판을 벌리였다. 이놈은 량반들의 초빙에도 좀처럼 응하지 않는다고 소문이 자자한 김성기를 두고 내기까지 걸며 하인을 보내여 그를 불러내려고 하였다.

이때 김성기는 몸이 불편하여 놀음판으로 갈수 없다고 점잖게 거절하였다. 하인으로부터 김성기의 말을 듣고난 호룡은 대노하여 소리쳤다.

《고현놈. 량반이 찾는데 천한 광대놈이 코대를 세워. 여봐라. 너희들 몽땅 가서 끌어오너라.》

급해맞은 하인들 대여섯이 우르르 몰려갔다. 그때 김성기는 찾아온 친지들과 함께 한창 거문고를 타고 있었다. 하인들에게서 호룡놈의 호통질을 전해듣고난 김성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너무도 분격하던 나머지 그의 허연 턱수염이 와들와들 떨렸다.

《무엇이 어째? 호룡이 이놈! 내 나이 일흔이다. 죽는것을 두려워할줄 아느냐? 이놈! 내 너따위놈들이 노는 꼴이 보기 싫어 서호강변에 묻혀살것을 결심한 사람이다.》라고 하며 하인들을 몰아냈다.

하인들이 쫓겨간 후 후환을 걱정하는 친지들앞에서

김성기는 《걱정을 마오. 백성은 나이가 벼슬이라 했거늘 제놈이 감히 어쩔라구, 어험!》라고 하면서 허연턱수염을 벅벅 내리쓸었다고 한다.

《몸은 죽어도 예술은 죽지 않는다.》

지난 봉건사회에서 향반(시골량반)의 자제라면 흔히 공부에 열중하여 향시에 합격하는것이 상례로 되고있었지만 향반집안에서 태여난 권삼득은 어려서부터 독서에는 힘쓰지 않고 오직 판소리공부에만 전력을 다하였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형은 그가 천한 신분출신의 광대로 되는것을 극력 반대해나섰다. 량반가문의 일대치욕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판소리공부를 그만두라고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삼득은 아버지와 형의 말을 종시 듣지 않았고 자기의 결심대로 판소리공부에 더욱 열중하였다. 이에 대하여 방임할수 없었던 그의 가정에서는 심중한 의논끝에 차라리 그를 없애버려 가문의 명예를 보존하자고 락착을 지었다. 드디여 삼득을 불러들여 그의 몸에 거적을 덮으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랬더니 삼득은 태연자약하게 누운 자리에서 노

래가락 한곡조를 부른 다음에 최후를 마치겠다고 애원하였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형을 비롯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삼득의 가엾은 인생의 최후소원을 허락해주었다. 이때 그 거적밑에서 울려나오는 더없이 비장한 노래가락은 듣는 사람들에게 참지 못할 감동을 주었다.

이로써 삼득은 죽음을 겨우 면하였으나 권씨량반가문의 족보에서 이름을 삭제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였다. 이 사실은 《몸은 죽어도 예술은 죽지 않는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로 되여 후세에까지 전해오고있다.

송흥록의 대구감영의 기생 맹렬과의 련애담

18～19세기 전반기 판소리 8명창의 한사람인 송흥록은 가곡명창인 김성옥과 처남매부간이였다. 그런데 당시 김성옥이 30살도 되기 전에 앉은뱅이가 되여 수년간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있었으므로 송흥록은 자주 그를 찾아가 병문안을 하였다. 성옥은 병속에서도 당시 성행하던 가곡을 연구하다가 진양조를 새롭게 발견하였다고 한다.

흥록이 어느날 성옥의 집을 찾아갔을 때였다. 그는 《근래는 병세가 어떠하며 과히 고독하지나 아니한가.》 하는 뜻의 말을 늦은 중모리조로 부르면서 방안으로 들어섰다. 흥록을 방안으로 맞아들인 성옥은 《병석에서 고독하고 비애를 몹시 느낀다.》는 의미의 말을 진양조로 화답하였다.

송흥록은 매부 김성옥으로부터 새로운 진양조를 듣는 순간 《이것은 노래분야에서 일대 새로운 발견이다.》라고 하면서 축하해주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 흥록은 늦은 중모리에 한장단만 더 넣으면 진양조장단이 된다는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판소리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송흥록이 진양조를 신비한 경지에 이르도록 완성한데는 대구감영의 기생인 맹렬과의 다음과 같은 련애담과 결부되여있다.

그가 산간벽지에 들어가 소리공부를 마치고 인간세상에 나와서 명성이 자자하게 된 어느날 대구감영에 불리워가서 판소리를 하게 되였다. 이때 감영에 모인 청중들속에서는 흥록의 소리를 듣고 명창이라는 칭찬이 차고넘치였다.

그렇지만 인물과 가무의 일등명기였던 맹렬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의 평가도 없었다. 홍록은 그 곡절을 알지 못하여 그 이튿날 맹렬의 집을 찾아가서 《어제밤 소리판에서 왜 한마디의 평이 없었는가.》고 물었다. 맹렬은 생긋이 웃고나서 《그대의 소리가 명창은 명창이나 아직도 미진한 대목이 있으니 피를 세동이는 더 토하여야 비로소 참명창이 될것이요.》라고 하였다.

홍록은 그 길로 자기 고향인 전라도 운봉군 비전리(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로 돌아가 폭포밑에서 다시 소리공부를 시작하였다. 소리지르기를 며칠간 하였으나 목이 아주 잠겨서 터지지 않았다. 그렇게 3달을 고생하다가 어느날에는 목구멍이 섬섬거리며 검붉은 선지피를 토하였는데 거의 서너동이폭이나 되였다.

이렇게 쐑소리(탁성)를 완성한 홍록은 다시 대구감영의 선화당에서 판소리를 하였는데 맹렬은 넋을 잃은 사람같이 홍록의 입만 쳐다보았다. 소리판이 끝나자 맹렬은 홍록의 처소로 찾아가 사랑을 약속하고 행장을 차려가지고 홍록의 고향인 운봉으로 가기로 하였는데 맹렬은 약속된 날자에 홍록의 처소에 나타나

지 않았다. 흥록이 보짐을 싸가지고 혼자서 고향집에 돌아가보니 빈집뿐이고 거기에도 맹렬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흥록은 침식을 전페하고 천신만고 맹렬의 행방을 수소문하다가 그가 진주병영으로 갔다는것을 알게 되자 그 즉시 진주로 갔다.

이때 맹렬은 흥록이 진주로 왔다는 말을 듣고 병마사 리경하에게 말하기를 《흥록을 불러 소리를 시키되 분부하시기를 〈너는 본래 명창이니 네가 소리를 하는데 능히 나를 한번 웃게 하고 또 한번 울게 하면 상을 후하게 주려니와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의 목숨을 바치거라〉하시옵소서. 그리고 소리는 정서가 메마른 〈토별가〉를 시키시옵소서.》라고 부탁하였다.

병마사는 맹렬의 말대로 흥록을 불러 소리를 시키였다. 흥록이 마음속으로 생각해본즉 이것은 분명 맹렬의 작간이 분명하였으나 병마사의 분부라 거역할수도 없었다. 그래서 흥록은 《토별가》를 부르게 되였는데 아무리 병마사를 웃기려고 온갖 어리광대짓을 다하여도 웃기는 고사하고 그의 얼굴에는 점점 독살

만 안개피여오르듯 하였다. 흥록은 느닷없이 병마사의 앞으로 달려들면서 《아저씨, 왜 아니 웃으시요. 나를 죽이고싶어서!》라고 하였더니 병마사가 픽 하고 웃었다. 흥록은 그것을 보고 물러서 《우리 아저씨가 웃기는 하였다마는 또 어떻게 우는 꼴을 보나.》 하고 토끼배따는 대목에 가서 애원성으로 어찌나 슬프게 하였는지 청중들은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병마사도 돌아앉아서 한번 슬쩍 수건을 눈에 대였다.

그리하여 소리판을 마친 뒤에 맹렬은 병마사에게 흥록과의 전일 사랑관계를 숨김없이 말하고 다시 흥록과의 깨여진 거울을 맞추었다.

그후 흥록과 맹렬은 사이좋게 살아가던중 말년에 함경도의 칠보산명승지를 찾아가서 한동안 살았다. 그런데 흥록의 소리에 반하여 같이 살던 맹렬은 그와 성격이 잘 맞지 않아 못 살겠다는 트집을 잡아 보짐을 싸가지고 영영 리별하자는 투로 문을 박차고나섰다.

이때 흥록은 마음속으로는 화해하기를 청할 생각이 간절하였으나 증오의 분격과 고독의 비애가 일시에 솟구쳐올랐다. 그는 애인과 영영 리별하게 되는 그 비통한 감정을 담아 《맹렬아, 맹렬아! 네 이년 잘 가

거라. 네가 간들 어쩔소냐.》라는 진양조의 사설로써 한곡조 넘기였다. 문밖에서 듣고섰던 맹렬은 그와 같은 심정을 이겨내지 못하여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서 화해하고말았다. 이것이 뜻밖에 흥록자신도 모르게 《자탄가》로 되였으며 이때 부른것을 계기로 하여 진양조를 신비한 경지에 이르도록 완성할수 있게 되였다고 한다.

절간에서 울려퍼진 《우레소리》

명창 방만춘은 11살때에 충청도의 어느 한 절에 들어가서 소리공부를 10여년간 꾸준히 하여 22살에 판소리공부를 마치고 한성으로 올라와서 처음으로 소리명창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였다.

방만춘은 판소리대가로 명성을 떨쳐볼 큰 뜻을 품고 다시 황해도 봉산군의 어느 한 절에 들어가서 4년동안 고심분투하여 자신의 성음과 성량을 련마해갔다. 절간에서 그는 소리를 수련하느라고 밤낮없이 목을 써서 성대가 극도로 팽창하여 발성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괴로움과 안타까움, 답답함을 형용할수 없는지라 어느 하루는 절간기둥을 끌어안고

목이 터지도록 있는 힘을 다 내여 소리를 몇번이나 질렀다. 그러나 목은 여전히 터지지 않아 나중에는 죽을 힘을 다 써서 소리를 지르고서는 기력이 다 진하여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말았다.

때마침 이 절의 목수가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뜻밖에 절이 당장 무너지는듯 한 굉장한 소리가 들리였으므로 깜짝 놀라 곧 절에 달려와보니 절간 중들은 다 외출하고 유독 방만춘만이 절기둥옆에 넋을 잃은 사람처럼 앉아있을뿐이였다. 목수는 방만춘더러 날씨도 맑아 우뢰소리가 날 징조도 없는데 절에서 웬 소리가 그리 굉장하게 났느냐고 물었다. 이 물음에 방만춘은 괴이하게 생각하면서 모를 일이라고 대답하였을따름이다. 사실 이때의 소리는 그가 절기둥을 끌어안고 목을 터치기 위해 죽을 힘을 써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굉장히 크게 울리였던것이다. 그렇지만 기력이 진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그로서는 전혀 알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있은 다음부터 방만춘은 성량이 웅장하게 크고 잘 다듬어진 소리를 내는 판소리대가로 되였다고 한다.

《왕손은 만만세》

1868년(고종 5년) 경복궁이 재건된 이후 어느 해인가 서도명창 허득선은 경복궁에서 진행되는 음악회에 초빙되였다. 당시 봉건통치배들은 이 음악회에 전국의 이름난 명창가수들은 초빙하면서도 지방적차별을 두면서 서도가수들은 명창으로 인정하지 않고 초빙대상에 넣지 않았다. 그렇지만 례외로 허득선만은 서도명창으로 소문이 자자한지라 한번 들어보자는 심산으로 초빙하였던것이다.

이날 음악회는 왕을 중심으로 문무백관들이 늘어선 가운데 전국에서 올라온 명창들의 무대가 펼쳐지다가 드디여 허득선이 출연할 차례가 되였다. 그의 특기인 서도잡가의 호탕하고 활달한 선률가락들이 특색있는 곱새춤과 어울려 엮어져 음악회의 흥취를 돋구었다. 게다가 남달리 귀가 큰 그의 귀바퀴가 노래가락에 맞게 아래우로 움직임에 따라 머리우에 쓴 망건도 오르내리였으므로 청중들의 웃음보를 터쳐놓았다. 이것을 본 임금과 문무백관들은 허리를 그러안고 웃어댔다. 참으로 이날 음악회는 한성이나 다른 지방의 명창들

을 제쳐놓고 허득선의 독무대로 되여 출연자와 청중은 흥취가 날대로 나서 한가락이 끝나면 재청이 계속 뒤따랐다. 바로 이러한 때에 허득선의 《왕손은 만만세》라는 기발한 지혜가 없었다면 당장 목이 날아날 번 한 사건이 일어났다.

한창 즉흥적인 가락과 가사를 뒤섞어가며 샘솟듯 소리가 흘러나오던 허득선의 입이 갑자기 굳어져버렸다. 그것은 방금 어느 옛책의 시구에 선률가락을 맞춘 대목에서였다. 즉 《춘추는 년년록이요 왕손은 귀불귀라》(봄의 풀은 해마다 푸르게 자라나지만 왕의 자손은 한번 가면 다시 못온다는 뜻)라는 내용에서였다. 그는 지난날 민간에서 소리판을 벌릴 때에는 왕족들에 원한품은 백성들과 어울려 왕의 대도 망할 때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 대목을 자랑스럽게 불렀는데 기분에 들떠있다나니 이번 소리판이 왕앞인줄도 잊고있었다. 그런데 《왕손은》 하는 소리는 이미 뱉아놓았으니 이제 《귀불귀》라는 문구를 번지기만 하면 당장에 목이 달아날 판이였다. 아무리 즉흥소리를 잘하는 그로서도 그 순간 앞이 캄캄하였다. 지금까지 웃고있던 관리들도 왕의 거동과 허득선의 입을 지켜보고있

었다. 이제 저 서도광대의 목이 어느 구석에 떨어질것인가 하는 기색이였다.

이때 허득선의 입에서 두번째로 《왕손은》 하는 문구가 나오고 또 소리가 뚝 끊어지고 한장단 곱새춤을 추더니 《만만세》라는 소리가 크게 터져나왔다.

순간 긴장되였던 청중들은 《후-》 하는 숨소리와 함께 요란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마치도 그것은 청중의 조이는 가슴을 틀어쥐고 소리판의 절정을 꾸며낸 하나의 기묘한 그의 예술적기지와 같이 보였다.

《어허, 무엄하기 짝이 없지. 감히 뉘앞이라고…》

속말로 외우고있던 왕은 《귀불귀》를 《만만세》로 고쳐불러 왕의 대가 오랜 세월 이어진다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여 허득선을 자기옆에 불러앉히고 술까지 부어주게 하였다.

그리고나서 그의 요구대로 총순벼슬(지방의 중간급벼슬)을 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허득선은 왕명으로 총순벼슬을 받아가지고 고향 평양으로 돌아왔다.

으리으리한 무관복에 번쩍거리는 칼을 차고 고향에 돌아온 허득선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그러나 그

는 총순벼슬을 줴버리고 스스로 관복을 벗어 장농에 넣었다. 사실 그가 임금에게 총순벼슬을 요구한것은 그토록 사랑하는 앞 못 보는 어머니가 어느날 장거리에서 병졸들에게 행패질을 당한것을 복수하려는데서였다고 한다. 이후부터 허득선은 평양사람들속에서 허총순이라는 별호로 불리웠다고 한다.

《이번엔 말을 웃겨보아라.》

허득선이 경복궁에서 벌어진 명창, 명기들의 음악회에서 무대를 들썩하게 하여 인기를 독점하고 서도명창으로서의 이름을 떨치자 한성의 세도대감들과 봉건사대부들은 저저마다 그를 청해들여 소리판 벌릴내기를 벌리였다.

허득선이 어느 세도대감집에 초빙되여가서 소리판을 벌릴 때였다.

이날 대감을 비롯한 대감집마당에 가득 모인 청중들은 허득선이 부르는 서도잡가의 호탕하고 활달한 선률가락들이 특색있는 곱새춤과 어울려 흥취를 한껏 돋구게 되자 허리부러질 지경으로 웃어댔다. 소리 한가락이 끝나면 재청이 뒤따랐고 재청이 끝나면 련이

어 3청, 4청으로 출연자와 청중은 흥취가 날대로 났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한성에서 제노라 하는 명기가 난딱 일어나 대감의 귀에 대고 무어라고 쏠아대였다.

아닐세라 대감의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튀여나왔다.

《허허, 네 재주가 과연 발바닥을 하늘에다 붙일듯 하구나. 그 재간이면 네 짐승도 능히 웃길수 있겠다?》

허득선의 대답 역시 걸작스러웠다.

《예, 다른건 몰라도 웃기라는것만은 아예 뚝 뗀줄로 아오이다.》

좌우의 청중들은 허득선의 이 대답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저 사람이 짐승이란 말을 잘못 들은 모양이지. 어찌 제맘대로 짐승을 웃길수 있겠나. 소가 제김에 씩 웃는것을 보았다는 사람은 있어도 사람이 시켜서 소가 웃게 한다는 말은 처음이 아닌가.》라는 등 서로들 주고받는 말이 분분하였다.

이때 대감이 좌중을 둘러보며 들으라는듯 호기를 부리였다. 《그럴테지, 그럼 이번엔 말을 웃겨보아라. 자네 틀림없이 말을 웃기면 내 큰 상을 주겠네.》

허득선은 말을 웃겨보라는 말을 듣고서야 자기가

실언이나 한것 같아 《내 며칠 쉬여 할가 하오이다.》 하고 말미를 얻어냈다. 대감은 (아무렴 네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웃길수 있어도 짐승이야 웃기랴.) 하는 속심에서 득선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리하여 대감집에 모였던 청중들은 모두 흩어져가며 허득선의 차후 일을 근심하였다.

한편 득선자신도 (어떻게 하면 말을 웃길수 있을가.) 하고 생각하며 그 알량한 명기가 자기를 골탕먹이려고 대감에게 쏠아댄것이 분명하니 내 기어이 해내겠다는 결심으로 마구간을 찾아가 말들을 살펴보았다.

사람은 급한 고비에 들어서면 살길이 열린다고 하더니 한 마사원이 달려나와 이런 말을 해주었다.

《암내인 암말의 오줌을 천에 묻혀 수말의 코밑에 가져다대면 수말이 좋아 어쩔줄 모른답니다.》 말을 웃길 묘리를 알려주어 고맙다고 득선이 말하자 마사원은 소리판을 벌릴 전날에 암내인 암말의 오줌을 묻힌 수건을 가져다주겠다고 하면서 마구간으로 들어갔다. 드디여 대감과 약속한 소리판을 벌릴 날이 왔다.

그새 한성장안에서는 서도광대 허득선이 말을 웃긴

다는 소문이 퍼져 남녀로소가 구경하려 대감집마당가에 가득 모여들었다.

소리판 네귀퉁이에는 득선이 요구한대로 수말들이 매여있었다.

이어 고수의 북장단이 박력있게 울리더니 득선이 허우대를 들썩거리며 소리절반 몸짓절반으로 소리판을 벌려나갔다. 즉흥적인 가락에 맞추어 소리가 샘솟듯 하는데 망건이 머리우에서 춤을 추고 귀바퀴가 움찍 움찍거리는가 하면 손에 쥔 수건이 가락맞게 너풀거렸다.

청중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득선이 곱새춤을 추며 말있는데로 다가가더니 수말의 코밑에 수건을 휘둘러대며 《이놈의 말 웃어주오. 네 웃으면 내가 살고 안웃으면 대감님이 좋을시구…》 이런 즉흥곡에 맞춰 빌기절반, 강요절반 웃기는 소리를 연방 해댔다.

청중들은 득선의 소리와 연기에 배를 끌어안고 웃으면서도 만일 말이 웃지 않으면 어찌하랴하는 표정으로 손에 땀을 쥐고 말들을 지켜보았다. 북고수도 잔가락으로 초점을 모아가며 득선의 소리와 연기에 장

단을 맞추어나갔다.

바로 이때였다. 동쪽수말의 큰 눈이 뗑그래지더니 코방울이 벌씬거리기 시작하였다. 이어 눈가에 느슨한 무엇인가 어리더니 대가리를 휘저으며 참을수 없다는듯 두다리를 쳐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뒤따라 사람들의 경탄이 터졌다.

《야! 말이 웃었다. 어떻게 웃겼을가. 저것봐 서쪽말도 또 웃잖수.》 북쪽과 남쪽말에서도 꼭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청중들은 박수를 치며 서도광대의 그 웃기는 재간이 신기하고 묘하기 그지없다고 찬탄을 금치 못했다. 세도대감과 명기도 두손을 바짝 들고 《귀신같은 광대》라고 경탄하였다. 이날 허득선은 고수와 함께 대감에게서 받은 상을 한짐 지고 들고 마구간의 마사원을 찾아가 넘겨주었다

《아까운 모가 다 밟혔구나.》

조선봉건왕조 말기에 활동한 신재효(1812～1884년)는 수많은 명창후비들을 양성한 이름난 민간음악가이며 특히 녀성가수양성에 힘을 넣었는데 당시 그에게서 지도를 받은 녀류가수들이 80여명이나 되였다

고 한다.

그는 당시까지 판소리라고 하면 남자들만이 할수 있는것으로 여기던 관념을 허물고 녀가수들도 판소리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명창으로 될수 있다고 하면서 녀가수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쳤다. 우리 나라의 첫 녀류판 소리명창으로 일러오는 채선은 바로 그의 손에서 자란 명창이였다.

특히 신재효는 가곡, 가사, 민요, 잡가를 잘 부르는 녀성가수양성에 힘썼다. 그의 가창지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노래에 담겨진 내용을 진실하게 형상하면서도 장단, 선률가락을 정확하게 표현할수 있도록 제자들에 대한 요구성을 대단히 높인것이다.

즉 제자들속에서 자그마한 부족점이 나왔을 때에는 가차없이 반복훈련을 주어 노래의 형상을 끝까지 완성시키고야마는 성미였다.

어느날 한 녀제자가 신재효를 찾아와 《잦은 농부가》에 대한 최종검열을 받을 때의 일이였다. 이날 신재효는 제자가 부르는 노래가 농부가였던만큼 그를 데리고 집근방에 있는 논판으로 갔다.

때는 모내기가 이미 끝난 뒤였으므로 논판에는 벼

모들이 파릇파릇 자라고있었다.

제자는 이미 스승으로부터 수십차례의 지도를 받은 노래였던것만큼 고운 목소리로 남도민요의 선률가락에 맞추어 구성지게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는 스승이 가르쳐준대로 손짓, 몸짓, 걸음걸이 등 맵시있는 발림을 해가며 자신있게 불렀다.

어화 어화여루 상사듸여
여보소 농부들 말듣소 어화 농부들 말들어
충청도 복숭아는 가지가지에 열렸고
강릉 배, 감, 대추는 아구데 아구데 열렸단다
어화 어화여루 상사듸여
폭양별에 살이 검고 흙탕물에 뼈가 굳네
… …

제자의 맞은편 논두렁에 앉아 지그시 눈을 감고 무릎장단을 쳐주던 신재효는 혼자말로 《고생끝에 락이 온다더니 리치를 바쳐 창법을 가르치고 애쓴 보람이 있어. 제자가 인젠 제법 소리도 구성지게 뽑아내고 형상도 그만하면 괜치 않구나…》라고 하면서 기쁨을 금치 못했다. 제자도 스승의 흐뭇해하는 모습을 얼핏

얼핏 보면서 더욱더 흥에 겨워 가벼운 어깨춤에 맞추어 걸음을 앞으로 살짝살짝 옮겨놓으며 건드러지게 소리를 뽑아냈다.

이 농사를 어서 지어 부모처자를 봉양하니
어찌 이 아니 락이런가 어화 어화여루 상사듸여
… …

순간 무릎장단을 치던 스승의 두손이 뚝 멎었는데 제자가 소리를 멈추고 스승을 쳐다보니 자기의 발끝에 스승의 눈길이 집중되고있었다. 제자는 평시에 애먹이던 《어찌 이 아니 락이런가》라는 대목이 또 걸렸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였는지 잘 알수 없었다.

이윽고 스승의 입에서는 《아까운 모가 다 밟혔구나.》라는 탄식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때에야 비로소 제자는 노래의 가락이 잘못된것이 아니라 모내는 내용을 담은 《잦은 농부가》를 부르면서도 농부들이 애써 심어놓은 모를 짓밟은것이 잘못이였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제자의 속마음을 알아본 스승은 말을 계속하였다.

《농부들의 땀이 스며있는 모를 짓밟으면서 아무리 발림을 잘하고 소리를 잘 넘긴들 어찌 농부가의 진맛을 낼수 있고 곡식을 가꾸는 농부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할수 있겠나. 아마도 농군들이 자네를 보면 실망할걸세.》

제자는 스승에게 깍듯이 인사하고는 마음을 다잡고 노래를 계속하면서 발걸음을 옆으로 옮겨나갔다.

다되였네 다되여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제가 무슨 반달이냐
초생달이 반달이로다 어화 어화여루 상사디여

신재효는 제자들에 대한 가창지도에서 이처럼 언제나 작품에 담겨진 내용을 진실하게 형상하도록 하였다. 그가 키운 남녀제자들속에서 명창들이 많이 나오게 된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한다.

충청도 감사를 골탕먹인 이야기

조선봉건왕조 말기에 활동한 박만순은 기예가 남달리 뛰여난데다가 성격이 오만하고 자존심이 매우 강하여 량반관료배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였다. 그러므로 판소리를 함에 있어서도 자기스스로 흥이 나지 않으면 제아무리 량반권세가의 집에서 초빙해도 응하지 않았고 태형과 장형을 당할지라도 자신의 자고자대한 기개를 굳건히 지키고 기예를 파는것과 같은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활동하던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군 하였다.

그의 예술활동상 이러한 특질은 어느 해에 있었던 사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박만순이 판소리대가로 이름을 날리여 궁중에까지 소문이 자자해지자 당시 집권자였던 대원군은 그를 불러올리도록 하였다. 그가 대원군의 부름을 받고 전라도의 시골에서 한성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충청감영에 이르렀을 때였다.

충청도의 감사 조병식이 그를 불러서 《네가 남도지방에서 명창으로 이름을 떨친다고 하니 내앞에서

판소리 한번 해보아라.》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만순은 감사앞에서도 《대원군께서 소리를 봉하여가지고 오라고 하셨으니 소리봉지를 뗄수가 없소이다.》라고 딱 잘라매며 거절하였다. 량반의 세력만 믿고 생살여탈을 임의로 하는 그 당시에 있어서 《북촌벼락》의 별호까지 받은 감사였지만 대원군의 세도적위력하에서는 한갖 천인출신의 광대인 박만순의 도도한 말에도 어찌하지 못하였다. 그보다도 권세가의 앞에서도 자체예술가의 본색을 조금도 굽히지 않는 박만순의 기개를 꺾을수 없었다.

박만순은 그 길로 한성으로 올라가 두어달 있으면서 대원군앞에서 여러 판소리를 불러주었다. 그는 귀가할무렵에 이르러 상경도중에 조감사의 청을 거절한 전말을 대원군에게 여쭈었다. 대원군은 그의 말을 듣고 조감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면서 너의 소매속에 넣어가지고 가서 전달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 내용인즉 《한마디로 딱 잘라버린 박모의 행위는 죽여 마땅하니 마음대로 처리하되 다만 세상에 둘도 없는 뛰여난 판소리를 한번 듣고 죽임이 좋을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편지를 받아본 조감사는 자기 식으로

해석하기를 그 소리를 보아서 죽이지 말라는 뜻인줄 알고 박만순을 죽일 대신에 도리여 너그럽게 대해주면서 판소리를 한바탕 시키였다고 한다.

박만순은 이때 대원군의 총애를 받아 무과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박선달이라고 불렀다.

이렇듯 박만순의 강의한 의지와 예술적기교로 하여 당대 권세가들도 그를 어찌할수 없었다고 한다.

박만순이 당대 세상에 둘도 없을만큼 훌륭하고 뛰여난 명창이였다는것은 그가 자기 고향의 어느 한 집에 약 한달동안 머무르면서 진행한 당대 판소리명창들과의 소리경연에서 남김없이 발휘된데서 알수 있다.

늙은 재상을 감동시킨 이야기

판소리명창 리날치가 활동하던 당시의 수도 한성에는 성격이 몹시 강의하고 무뚝뚝하며 기쁨과 노여움의 기색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늙은 재상이 살고있었다.

그는 자기 아들이나 손자가 죽는 슬픈 광경을 보고도 태연자약하는 사람이였다.

어느날 그의 집에 친구들이 모여들어 이야기를 하다가 화제가 광대이야기로 번져지게 되였다. 이때 한 사람이 《명창은 능히 사람을 울리고 또 웃긴다고 하더니 리날치야말로 과연 그러하다.》라고 하였더니 그 주인재상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러할리가 없을것이지만 만일 있었다고 하면 마음이 약한 졸장부에 한하여 있을 일이고 강의하고 기백이 있는 대장부로서는 한 미천한 광대에게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웃거나 울음을 낼수야 있겠느냐.》라고 하여 갑론을박하면서 생각이 일치되지 못하여 결국 실제적으로 리날치를 불러 그 여부를 시험해보기로 하였다.

주인집재상은 그날로 명창 리날치를 불러오도록 하고 그와 금 천량과 목숨과의 서약을 정하였다. 즉 리날치의 판소리에 감동을 받아서 주인이 눈물을 흘린다면 천금을 주고 이와 반대로 하등의 감동적발로가 없게 되면 리날치는 목숨으로 대신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그 재상집에 초빙되여간 리날치는 흔연히 자리에 가득찬 사람들앞에서 《심청가》중의 심청이가 자기 부친의 눈띄우기를 위하여 공양미 삼백석에 몸이 팔려서 림당수제물로 악마같은 남경선인들에게

끌려갈 때 그 부녀간 헤여지는 장면, 심청이가 앞 못 보는 고독한 부친을 마을사람들에게 돌봐달라는 부탁의 애절하고 슬픈 사설, 피눈물을 흘리면서 허둥지둥 림당수에 몸을 던지는 광경과 더없이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마치는 장면을 실제의 사실처럼 슬픈 사설과 애절한 곡조로 표현하였다.

듣고있던 사람들은 물론 귀신도 따라서 울음을 터뜨릴만치 되였다.

바로 이 순간 주인집 늙은 재상은 심청의 지극한 효성에 감격을 받아서인지 리날치의 출중한 소리에 인생의 비애를 가슴속깊이 느끼였는지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뒤로 돌아앉아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소매로 씻고나서 이미 약속한대로 리날치에게 금 천량을 주어보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있은 후에 리날치의 명성은 수도 한성에서는 물론 전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고 한다.

《동방례의지국의 녀성답지 못하오.》

조선봉건왕조 말기에 활동한 장자백은 전라도 순창군에서 태여나 김세종의 제자로 되여 그의 기법을 계승한 명창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원래 풍채가 남달리 뛰여나고 얼굴이 잘 생겨 당시 사람들속에서 미남자로 이름이 났다.

그가 당대의 판소리대가로 되려고 단단히 결심을 품게 된데는 일정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처와의 관계속에서 빚어진 다음과 같은 사연에 기인되였다.

장자백의 처는 얼굴이 남달리 곱고 남편의 풍채에 뒤지지 않아 당시 미인의 평을 받고있었다.

그는 항상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다른 사람보다 락후함에 불만을 품고있었다. 그러던중 그는 아무래도 남편이 판소리에 크게 성공할수 없다고 단정하고 이에 락망하여 전라도 옥구에 사는 어느 한 부자집의 첩으로 들어갔다.

이에 격분한 장자백은 판소리를 공부하여 세상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케 하는 거장이 되지 못하면 죽고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나무군이 되여 나무를 해팔고 품팔이농부가 되여 생계를 겨우 유지하면서도 천신만고 판소리에 대한 련마를 거듭하였다.

그는 판소리공부를 위해서는 스승을 찾아 백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갖은 고초를 다 겪은 결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모두가 다 인정하는 명창이 되였다.

장자백의 쟁쟁한 명성이 멀고 가까운 곳에 널리 퍼지게 된 어느날 그는 전라도 옥구지방에 사는 어느 한 부자집의 환갑잔치에 초빙되여가서 소리판을 벌리게 되였다.

이때 앞서 도망친 그의 전처가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밤새도록 전남편의 소리를 들었다.

명창이 되여 소리음조가 전날에 대비할수 없었을뿐더러 그 선인같은 풍채 또한 전날과 다르게 보였다.

그의 반변한 심리는 다시 새로운 련모의 정으로 바꾸어졌다.

그 세차게 타오르는 불같은 애정을 이기지 못하여 소리를 마치고 돌아가는 장자백의 소매를 붙잡고 다시 인연을 맺을것을 애원하였다.

그러나 장자백은 《동방례의지국의 녀성답지 못하

오.》라고 단마디로 녀자의 잘못을 말해주고나서 종시 거절하고말았다.

그후 장자백은 자기 스승인 김세종에 못지 않은 판소리명창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였다고 한다.

원각사가 망하라고 치성드린 이야기

근대시기 민족극음악형식인 창극을 창조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한 명창은 김창환이다.

김창환(1849~1934년)은 전라도 라주사람인데 각종 고전가요들에 정통하였을뿐아니라 앞선 명창들에 대한 견문도 높았다. 김창환은 20세기초에 판소리명창들과 함께 앞선시기 판소리의 창조적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새로운 음악극양식을 창조하는데 헌신하였다. 그는 판소리가 가지고있는 서사극적요소들을 무대극적방식으로 전환시킬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 창극창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당시 여러 명창들과 함께 《협률사》라는 창극단체를 조직하고 우리 나라의 첫 근대적극장인 원각사무대에서 창극의 첫 상연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였다.

1902년에 이 극장이 창설되자 송만갑, 렴덕준, 리동백 등의 명창들과 협의하여 창극창조를 위한 《배우조합》을 새로 내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05년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배우조합》을 조직하고 전국의 우수한 소리광대들을 국가의 명령으로 불러올리게 되였다. 배우조합의 총지휘는 김창환이 맡았고 조합장은 명고수 강재옥이였으며 이에 망라된 배우들은 송만갑, 렴덕준, 리동백, 류공렬, 김창룡, 한성준 등 이름난 명창들이였다. 원각사무대에서 첫번째로 창극화하여 무대에 내놓은것은 《춘향전》이였다. 그후에는 창극《춘향전》창조경험에 기초하여 《심청전》, 《흥보전》 등 고전작품들을 상연하였다.

1906년 원각사가 페쇄되자 김창환은 《협률사》, 《연흥사》 등의 이름을 달고 지방순회공연을 하는 창극단체를 지도하여 창극활동을 적극 벌려나갔다. 이때 그는 창극무대에 자신이 직접 출연하여 소리뿐아니라 무대연기에서도 독특한 솜씨를 보여주었다. 그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 무대가 꽉 차있는듯 장중하였으며 노래의 내용에 맞는 그의 몸가짐과 얼굴표정은 청중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특히 그는 창극

에 나오는 각이한 인물형상들의 천태만상을 능란하게 구사하였다.

김창환은 무대예술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급격히 높아지고 또 페쇄되였던 원각사가 1908년 7월에 다시 운영되게 되자 40여명의 명창들과 24명의 악사들로 무어진 배우집단을 이끌고 원각사무대에서 창극상연활동을 계속 진행하여 인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 시기 창극무대에서는 고전작품뿐아니라 새로운 주제의 작품들도 창작공연하였다. 당시 강원도에 새로 부임된 탐관오리 정감사가 원주고을에 사는 최병두라는 사람을 아무 리유없이 잡아다가 매질하여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실재한 소재에 기초하여 새로운 창극을 만들고 김창환은 최병두역을 담당하여 훌륭하게 형상하였다.

당시 창극 《최병두전》이 성황리에 상연되자 원각사가 하루빨리 망하기를 바라며 치성드린 흥미있는 일화도 생겨났다고 한다.

어느날 창극 《최병두전》공연을 보려고 정감사의 아들놈이 원각사에 나타났다. 그것은 그가 수도 한성에 나들이 왔다가 소문난 원각사공연을 보지 않고서

는 내려갈수 없었기때문이였다.

김창환이 주역으로 된 《최병두전》을 보던 그놈의 눈알이 휘딱 뒤집어졌다.

창극에 나오는 주역인물의 형상대상으로 되고있는 탐관오리가 바로 제 애비였던것이다.

그놈이 그날로 부랴부랴 되돌아내려가서 원각사창극소식을 제 애비에게 전하니 온 집안이 벌둥지 쑤셔놓은듯 하였다.

아무리 강원도땅에서는 권세가 제노라하는 정감사라 할지라도 제놈의 비행이 창극작품으로 되여 온 세상에 드러나는데 발편잠이 올리 만무하였다. 그래서 온 집안족속들이 떨쳐나 상소요, 항의요 법석대며 창극 《최병두전》의 상연중지운동을 벌리였다.

허나 아무리 요동을 다 써보았으나 개가 흘러가는 달을 보고 멈춰서라고 짖어대는 격이였다.

원각사의 창극무대는 계속 성황리에 막을 올리고있었다. 안달이 날대로 난 정감사는 이번에는 치성드리는 놀음을 벌리였다.

그는 남몰래 온 집안족속들로 하여금 집뒤뜰에 있는 배나무밑에 제단을 쌓게 한 뒤 자기 녀편네와 함께

아침저녁마다 제단앞에 꿇어앉아 두손을 싹싹 비비며 《성황님께 비나이다. 원각사가 하루빨리 망하게 해주옵소서.》라고 치성을 드리였다.

제아무리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 제물로 바치면서 매일같이 성황님께 빌었으나 허사였다.

정감사놈은 결국 그 탐욕죄로 하여 입기를 채우지 못하고 감사직에서 파면되였다고 한다.

《기생서방(량반)》을 골탕먹인 이야기

근대시기에 활동한 민간음악가인 김창조(1856~1919년)는 새로운 기악양식인 《산조》의 창시자로 민족음악사에 이름을 남기였다.

그는 전라도 령암의 세습적인 률객(악기연주가)의 가정에서 태여나 어려서부터 민족악기를 잘 다루었다. 청소년시절에는 가야금연주에서 남달리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30살이 넘어서자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벌려 음악창작과 연주에서 명성을 떨치였다. 이 시기에 그는 가야금, 거문고, 해금, 저대, 단소 등 여러가지 민족악기들에 정통하였으며 특히 그가 소유한 가야금연주기량은 당시 그 누구도 따를수 없었다고 한다.

김창조는 가곡, 가사, 판소리 등 성악분야에도 조예가 깊었던만큼 그가 가야금을 타면서 부르는 노래는 사람들의 심금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그는 가야금병창명수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이처럼 기악명수, 가야금병창명수로 활약하던 그는 판소리의 장단체계에 기초하여 가야금을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과정에 새로운 기악양식인 가야금산조를 창조하였다.

가야금산조는 봉건통치배들의 한가한 생활감정을 반영한 무미건조하고 도식적인 궁중악곡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기악곡으로서 반침략반봉건투쟁이 앙양되던 조선봉건왕조 말기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투쟁정신을 일정하게 반영한것이다.

가야금산조는 음악형성발전이 순조롭고 론리적이며 극성이 강하고 생동한데다가 가야금전체가 가지고있는 풍부한 표현력과 그를 안받침한 높은 연주기법 등으로 하여 당대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기악곡으로 되였다.

김창조는 가야금산조를 창조하였을뿐아니라 《기생서방(량반)》들을 골탕먹인 대바른 음악가로도 명

성을 떨치였다.

당시 남도지방의 률객들은 물론 기생들도 가야금산조를 배우려고 김창조의 집을 찾는 제자들이 많았다. 그는 비록 나이가 많았으나 가야금산조를 가르칠 때에는 매우 정열적이며 구체적이였다. 특히 기생들에게는 연주자세, 연주기법으로부터 정신력집중과 청중과의 교감에 이르기까지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다나니 때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욕설을 퍼붓기까지 하였다.

그가 1915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기생들에게 가야금산조를 가르칠 때의 일이였다.

이날도 그는 여느 때처럼 많은 기생들이 모인 가운데서 《가야금연주자세와 인상은 장단을 치는 고수와 악기에 집중하고 웃는 인상을 해야 한다.》느니, 《시선은 항상 왼손에 집중하여야 한다.》느니, 《연주자의 심신은 <산조>곡에 가있어야지 청중에 눈을 팔면 안된다.》는 등의 요구성을 입버릇처럼 뇌이면서 정력적으로 지도하였다.

그런데 이날따라 산조합주가 제대로 되지 않아 쌍욕으로 번져졌다. 《너는 무슨 생각을 하며 가야금을

타느냐? 정신을 가야금에 집중하라.》 《야, 넌 쉰밥 먹고 나왔냐? 인상이 왜 그 모양이냐?》 《월향이 어제밤의 그 <서방>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욕설하던 김창조는 이날 산조합주가 잘되지 않는 원인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매일과 같이 기생들의 치마끄리에 붙어다니는 《기생서방》들이 연습장 주변에 와서 머리를 기웃거리고있었기때문이였다.

이날 문제의 발단은 바로 여기서 났다.

《기생서방》들은 기생들에게 쌍욕을 퍼붓는 김창조를 두고 격분을 금치 못했다.

《저런 뻔뻔스런 상놈 봤나. 월향이를 제 계집 쌍욕하듯 하네.》 《저놈 담도 크다. 내 소월이에게 손가락질까지 해대?》

비위가 몹시 상한 《기생서방》들이 입을 모아 삿대질을 하였다.

그러나 원래 체격이 좋고 위풍당당한 김창조는 예술가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간직하고 량반들의 거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긴 장죽의 담배대를 입에 물고 담배를 피웠다.

약이 오를대로 오른 량반들은 모여앉아 김창조를

혼내줄 쑥덕공론을 벌렸다.

《저놈을 기생들이 보는 앞에서 납작하게 만들어야 하네.》 《아무렴, 제놈이 아무리 가야금명수라고 뽐내여도 천한 신분이야 감출수 없지. 이제 량반법도를 가르치면 설설 기지 않나 두고보지.》

김창조는 《기생서방》들이 지껄이는 소리에는 개의치 않고 태연자약하게 기생들의 산조합주를 흐뭇한 마음으로 들으며 무릎장단까지 쳤다. 그러다가 소주종발을 입에 가져다가 술을 마시려는데 량반 한놈이 달려들어 종발을 탁 쳐버리고 호통질을 하였다.

《이놈, 무엄하기 짝이 없다. 상놈인 주제에 어디 량반들이 보는 앞에서 감히 술놀음이냐?》

순간 김창조의 얼굴이 모욕과 격분으로 달아올랐다. 그는 두눈을 부릅뜨고 격한 음성으로 맞받아 큰소리를 쳤다.

《여보시오. 먹는데도 량반 상놈이 따로 있소!》

불같은 호령소리에 오만하게 나섰던 량반이 정신이 얼떨떨하여 눈만 껌벅거렸다. 괜히 자는 범 건드려서 화를 청한 격이 되고말았다. 북은 치면 소리난다고 마주서 입씨름할수록 망신만 더 커질것같았다.

김창조에게 먼저 달려들었던 량반놈과 짝자꿍을 치던 《기생서방》들도 김창조의 굽어들지 않을 강직한 기개와 도고한 위엄앞에 얼굴이 벌겋게들 되여 입만 쩝쩝 다시다가 도망을 치고말았다. 결국 기생들이 보는 앞에서 김창조를 혼내우려다가 오히려 제놈들이 골탕을 먹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기생들의 입을 통하여 량반들이 골탕먹은 소식이 전주감영에까지 들어가 《기생서방》들은 관청에 불리워가서 량반의 《권위》를 훼손시킨 죄로 심문을 받았다고 한다.

반면에 김창조는 대바른 기악연주가로 민간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고 한다.

《나는 저 서도명창에게 〈박타령〉을 양보하겠소.》

창극조의 대가로 알려진 리동백도 《흥보가》중의 《박타령》만은 서도지방(평안도, 황해도지방)의 민간가수에게 양보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지고있다.

당시 수도의 창극무대에서 활동하던 리동백은 어느 해에 황해도 봉산에 사는 장진사라는 호부자의 환갑잔치에 여러 명창들과 함께 초빙되여갔었다.

이때 장진사는 자신의 환갑잔치를 계기로 각지의 소리군들을 초빙하여 며칠간 소리판을 벌리였다.

소리판을 벌린지 사흘째 되는 날이였다. 봉산의 이웃고을에 사는 민간가수 박만규란 사람이 괴나리보짐을 둘러메고 찾아왔다. 장진사가 환갑잔치에 각지의 소리군들을 청해들인다는 소문을 들은 박만규는 부랴부랴 떠난 걸음이 이처럼 뒤늦게야 도착했던것이다. 이때 소리판은 벌써 한성에서 온 명창들이 타고앉아 한창 분위기를 올리는지라 먼길을 달려온 그를 누구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게다가 이날의 무대는 창극조의 대가로 이름난 리동백의 《박타령》으로 판을 끝낸다는것이였다. 박만규는 조바심에 사로잡혀 소리판을 주관하는 사람의 옆구리를 찌르며 《박타령》을 한마디만 부르게 해달라고 청해보았으나 허사였다.

바로 이럴즈음에 리동백이 소리판의 마감을 장식하기 위하여 고수에게 눈짓을 하고 《박타령》을 넘기니 청중의 절찬속에 끝나가고있었다.

박만규는 이때라고 생각하고 소리판에 뛰여들었다.

《수안에서 찾아온 서도명창 박만규올시다. 이왕지사 장진사어른의 청을 듣고 먼길을 찾아왔으니 소리

한마디 해보고 갑시다요.》

국창들의 소리판에 뛰여든 그를 보자 장내는 뒤숭숭하였다.

《글쎄, 둥둥하면 배뱅이굿판인가 하는 모양이지. 제가 무슨 박수무당이나 된다고 으하하 …》라고 시골가수를 어처구니없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웃음보따리를 아끼고들 계시요. 어험, 장진사주인어른께서 승인하신줄로 알고 나도 <박타령>을 부르겠소이다.》

박만규는 능청스럽게 소리곡목까지 소개하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서리렁 슬근 톱질이로구나
서리렁 슬근 당기여라 …

그가 부르는 《박타령》은 방금 리동백이가 부른 남도판소리풍의 소리가 아니라 서도민요조로 구수하고 재치있게 엮어나가는것이였다. 그래서 실지 청중들은 그의 독특한 서도민요가락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귀를 강구고있었다.

더우기 흥부내외가 다켠 박통에서 쏟아지는 비단필을 량손에 들고 얼씨구 절씨구 춤추며 노래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흥취나는 발림까지 곁들어대는 바람에 청중들도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며 돌아갔다.

박만규의 서도식 《박타령》으로 하여 흥겨운 절정을 이룬 소리판의 한쪽 모퉁이에 서있던 리동백은 한성에서 온 명창들에게 《과시 서도창법이 훌륭하오. 나는 저 서도명창에게 <박타령>을 양보하겠소.》라고 하였다고 한다.

조선민족음악사에 깃든
유래와 일화

집필: 박미월

편집: 탁성일

낸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행: 주체107(2018)년 3월

ㄱ-8835002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http://www.korean-books.com.kp